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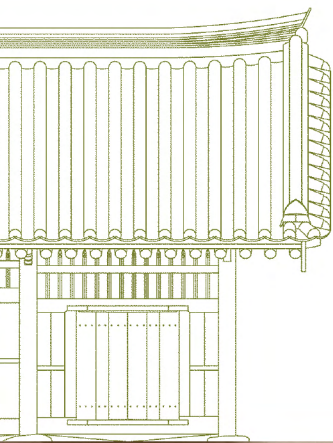
#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비매품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문화적 전통, 정신은 물론 지성적인 무형유산의 가치와 유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형유산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미래의 정신적 원동력을 유학에서 찾으려는 요즘, 서원의 가치도 재평가 되고 있다. 모두가 물질적 성공을 말할 때, 자연과 인간을 말하는 서원. 서원은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 한국의 서원문화







#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 들어가며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서원총서(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등재 대상 9개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사적 제55호),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경주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달성 도동서원(사적 제488호), 안동 병산서원(사적 제260호), 정읍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입니다.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1년 4월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14개 지방자치단체 및 서원 운영자, 서원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했고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14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정식으로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발족하여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워크숍 개최, 해외 유사유산 답사 진행 등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서원의 복합적 기능과 역할을 각기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강학과 장수·예학禮學,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제향과 문중門中 활동, 향촌민 교화, 정치 여론 수렴 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서원 건물과 관련된 건축 공간 및 배치, 자연 환경 및 수려한 경관 등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원동력에는 교육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립학교의 효시인 서원 교육에는 인류의 미래지향적 가치인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평화를 추구하는 융합적인 조화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원에 들어서면 아름답고 우아한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나무들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는 백 마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원의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을 드나들 때나 누정에서나 강학당·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유교가 주는 인간이 깨우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서원끼리도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서원을 찾은 손님의 명단인 심원록을 보면 유명 유학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상하질서·상부상조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게 하고 바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도 이상과 같이 인류가 남긴 공동의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획·발간하게 된 ‘서원총서(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는 총 2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책 『한국의 서원문화』는 역사, 건축, 지리 등 서원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의 서원이 가지는 특징을 분야별로 정리



하였으며, 2책 『한국의 서원유산 1』은 등재 대상 9개 서원별로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독자들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서원의 도면과 사진 등을 삽입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으신 여러 집필자 선생님들과 양질의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쓰신 도서출판 문사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공무원, 서원 전문가, 서원 운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2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장 이배용

\*일러두기

1. 본문에 수록한 서원의 순서는 창건연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연도표기는 서기(재위년도)순으로 하였다.
3. 전집, 단행본, 성책류는 『 』로 표기했고, 문서, 기사 등은 「 」로 표기하였다.
4. 저자의 순서는 원고 내용 순이고, 소속은 책 뒤 서지사항에 일괄 표기하였다.
5. 인명은 실명을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호, 자를 병기하였다.

## 한국 서원의 발자취 정만조



- 1 선비들의 꿈이 현실과 만나던 시대 15
- 2 선비들의 보금자리, 마침내 등지를 틀다 20
- 3 사림의 시대에 보이는 서원의 여러 모습 28
- 4 왕조의 주름살에 드리운 실루엣 40
- 5 서원은 정녕 구시대의 유산일 뿐인가 44

## 한국 서원과 천인합일 경관 김덕현



- 1 천인합일의 세계관과 서원 경관 51
- 2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옥산서원 59
- 3 도동서원과 병산서원 75
- 4 남계서원과 필암서원 85
- 5 돈암서원과 무성서원 95
- 6 한국 서원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101

## 한국의 서원 건축 이상해



- 1 서원 건축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109
- 2 서원 건축 형식의 성립 배경 : 성리학적 세계관 115
- 3 서원이 세워진 장소와 서원의 공간 구성 122
- 4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과 시설물 127
- 5 한국 서원 건축의 특성 137
- 6 맺음말 147



## 한국 서원과 교육활동 정순우



- 1 서원 교육의 시대적 배경 155
- 2 서원 교육의 이념적 배경 163
- 3 서원의 강학활동과 교육문화 173
- 4 서원의 교과목과 스승 187

## 한국 성리학과 서원 지두환



- 1 한국 성리학의 변천 199
- 2 조선성리학의 지방확산과 서원 204
- 3 조선성리학의 발달과 서원문화 216

## 한국 서원의 제향 의례 정승모 · 이해준 · 최순권



- 1 제향 공간으로서 서원의 전통 223
- 2 서원의 제향 인물과 제향의 종류 225
- 3 제구, 제물과 그 의미 229
- 4 제향의 기본절차 235
- 5 서원마다 간직해 온 고유의 의례관행 245
- 6 제향 의례로 다져지는 결속과 계승 261

## 한국 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이수환



- 1 원임의 구성과 직무 269
- 2 원생의 자격과 선출방법 276
- 3 서원의 경제적 기반 282
- 4 인적조직과 경제관련 고문서 299

## 한국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네트워크 이해준



- 1 서원의 지성사, 문화사적 가치 311
- 2 서원과 향촌사회 315
- 3 서원의 건립과 지역네트워크 318
- 4 학파와 학맥의 거점 330

##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옥영정



- 1 지식의 보물창고, 서원의 장서 345
- 2 서원 장서의 수집 방법 349
- 3 서원 장서의 이용과 보존 357

## 한국 현대 서원과 서원 현황 박성진 · 최영갑



- 1 서원 복원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미래 373
- 2 현대사회에서의 서원운영 모색 381
- 3 서원의 계승과 발전 모색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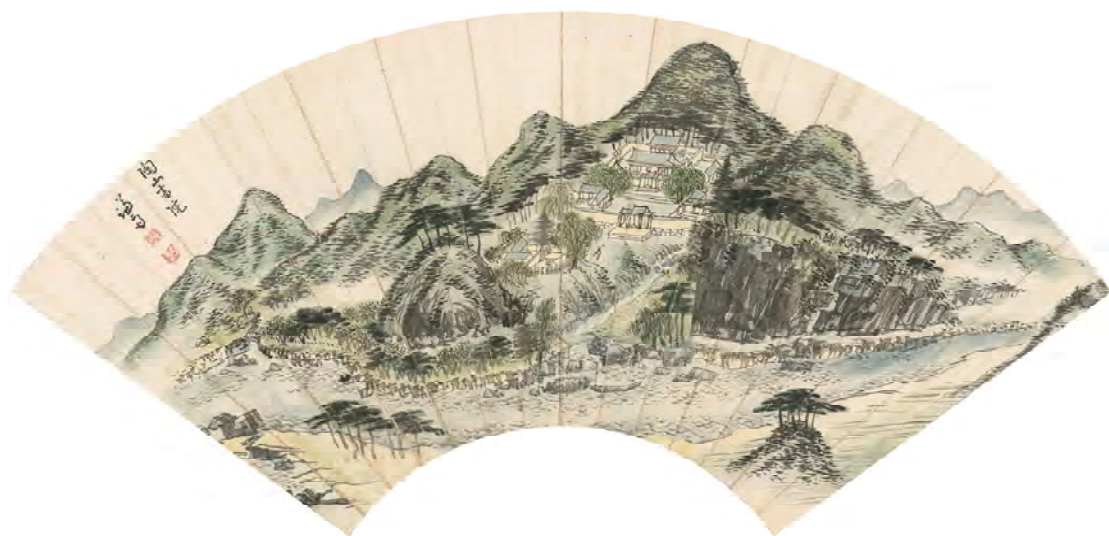
## 부록 한국의 서원 자료 정현정 · 박진재

- 한국 서원 문화사 연표 407
- 시기별 · 지역별 서원 건립 현황 413
- 사적지정 9개 서원 일람 418
- 참고문헌 421









도산서원도,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외예外裔인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謙齋 정선鄭愼(1676-1759)이 도산서원을 실경實景으로 그린 것이다.

# 1. 선비들의 꿈이 현실과 만나던 시대

## 1.1 양반을 보는 눈

서원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한 듯하다. 기껏해야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교이거나, 양반사회의 유지를 위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보급처 정도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양반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던 근거지였다는 설명이 더 솔직하다. 여기에는 으레 권력 장악을 위해 혈투를 벌이던 이른바 ‘당쟁黨爭의 소굴’이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그리고 끝내 서원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어 망국의 길을 걷게 한 주원인이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로 마무리되고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방적인 평가가 전부일까?

역사는 과거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몇 가지 사관이 있어 왔는데, 그 중 식민주의사관은 양반을 무능하고 부패한 사회적 존재로 낙인찍었다. 또한 편중된 의식의 민족주의사관은 그들에게 망국의 책임을 물었으며, 민중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사회주의 사관 역시 양반을 두고 ‘인민을 착취하는 타도되어야 할 사회계급’이라며 역사적 위치를 못박았다. 양반을 보는 눈이 이러한 만큼 그들의 활동 터전이 되었던 서원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될 수 없었음은 어찌면 당연하다.

양반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 당시에도 있어왔는데, 예를 들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은 『양반전』에서 사회를 쪼먹는 존재로 양반을 풍자하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양반사족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박지원에 의해 희화화된 양반이 그야말로 이미 ‘주름살투성이에 정신마저 나가버린’ 노쇠한 그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약용이 자신의 이상을 함께 실현시키고 싶었던 젊은 양반들의 모습과 문화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2 사림士林의 시대

‘사士’란 독서하는 선비를 가리키고 수풀을 가리키는 ‘림林’자에는 무리라는 뜻이 있으므로 ‘사림’은 곧 선비의 무리를 말한다.

조선을 건국한 주체는 사대부로, 그들은 고려 후기 지방으로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 정치세력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 불안정한 권력을 둘러싼 왕과 공신 사이의 갈등으로 왕자의 난과 같은 정치적 충돌이 잦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종의 치세를 거쳐 성종연간(15세기 말)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마련하는 등 국가 통치의 기본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정변에 참여해 공신이 된 사대부의 후예들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척신戚臣으로 변모하였다. 역사는 이들을 훈구파勳舊派, 또는 훈척勳戚이라 부른다. 자연히 국가권력은 그들 손아귀에서 늘었고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부패가 뒤를 이었다. 개국 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던 조선 사회는 이제 전반에 걸쳐 불만이 끓어올랐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대변하여 등장한 비판세력이 사림이다. 사림들은 사대부와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조선의 건국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머물며 주로 품관品官으로 불리던 세력의 후예들이었다. 여기에 조선 초기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밀려난 관료들의 후손들이 가세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데는 영남출신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김종직金宗直(1431-1492)의 힘이 컸다.

김종직은 그를 따르는 젊은 선비들에게 주자성리학의 의리론을 가르치고, 욕망의 절제를 통해 극기에 가까운 철저한 자기수양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들만이 성현의 도리를 실천하여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참된 ‘선비 집단’, 곧 사림이라 하였다. 그들이 사림을 국가의 ‘원기元氣’요 나라의 운명이 이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사림의 자격과 범



주를 설정하며 또 그 존재를 강조했기에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그들을 ‘사림파士林派’라 부른다.

점차 집단을 형성하게 된 사림파들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바로 정치세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림의 형성과 정치적 성장은 훈척을 불안하게 하였다. 연산군 이후 중종·명종을 거치면서 4차례나 거듭되었던 사회士禍는 바로 기득권자인 훈척의 정치적 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림의 명분론名分論 앞에 훈척은 무력하게 패배하였다. 더구나 그들의 부패와 비행은 쇠락하는 운명을 재촉했다. 연산군의 심복으로 사회를 일으킨 임사홍任士洪의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김종직의 문인이 되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훈척에서 사림으로 전향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16세기 중반(명종 말년)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문정왕후文定王后的 죽음으로 훈척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사림이 국가 운영의 명실상부한 주도세력이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이른바 ‘사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림의 시대는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정책결정의 기준이나 정국운영의 방식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먼저 현실론을 앞세운 부국강병보다는 의리와 명분에 토대한 인심수습과 안정을 우선하였다. 무엇보다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한 정책결정보다는, 지배층 전체가 참여한 토론에서 도출된 공론公論을 정국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물론 명분을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논의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결속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붕당朋黨의 형성과 그로 인한 정쟁의 격화(종전 표현대로라면 당쟁)가 오게 되었음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공당公黨’의 경우, 이를 붕당이라 하여 반드시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리학에 토대한 논리를 근거로 당당하게 논전을 벌이는 행위를, 밀실의 음모를 통해 사적인 이해를 쫓는 정치형태와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림이 취한 이러한 정치형태를 붕당정치라 하며 15세기의 훈척정치나 18세기 이후의 탕평·세도정치와는 구별되고 있다.

한편 사림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어서 문화계의 양상은 한마디로 주자학풍

朱子學風의 일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 중심의 사상논쟁이나 가례家禮 위주의 예학禮學 연구가 그러하였다. 다분히 관념적이지만 오랑캐인 만주족이 세운 청淸의 지배를 받는 중국은 이미 문화중심지로서의 중화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오히려 명明의 정통성을 계승한 조선이(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만동묘萬東廟가 이를 상징한다) 중화가 되었다고 믿는 문화적 우월 의식 역시 그 결과로서 가능했었다.

사람이 주도하던 16세기 중반-18세기 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흔히 양반사족이 중심이 되어 운용되는 향촌공동체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반사족이란 조선 초 약 1세기 간에 걸친 신분재편성 과정에서 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미 조선 초부터 중앙에서는 사대부士大夫, 지방에서는 품관品官으로 불리어지면서 향촌사회의 운영에 관여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중기에는 지배신분으로서의 지위가 정착되자 상호간에 결속을 강화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향약鄕約이나 향촌의 구휼救恤기구인 사창제社倉제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향촌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들로 하여금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은 사람의 주도 하에 향촌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향촌을 지키고자 일어난 것으로, 이러한 향촌공동체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란 후에도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우선 지주인 양반사족과 생산자인 농민의 공동노력으로 저수지를 쌓아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모내기에는 물론 밭이랑 사이에 골을 파서 파종하는 건종법畝種法과 같은 신농법이 도입되었다. 생산력의 증가로 향촌사회는 곧 안정을 찾아갔으며, 이는 18세기 이후 본격화하는 유통경제의 발전에도 기초가 되었다.

젊은 시절의 양반이 연출했던 ‘사람의 시대’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아버지가 양반이면 그 자식이 그대로 양반이 되는 것과 달리, 사람은 신분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전의 학습을 통한 각고의 노력과 철저한 자기 수양 및 극기克己와 같이 다듬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존재였다.

요·순임금이 실현하고 공자와 맹자가 학문으로 정리했다는 성문聖門인 유학

에 뜻을 둔 초보 유생을 가다듬어 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은 서울에 성균관을,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 그러나 과거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이들 관학官學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수행은 바랄 수 없었다. 때문에 진정한 사림의 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학교가 있어야 했고, 이것이 바로 사림과 함께 서원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당시 사림계를 대표하던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이 서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제도의 정비와 함께 보급운동을 벌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원은 이처럼 사림의 시대에 그들을 양성하는 학교요, 활동기반이며 근거지였다. 그러므로 서원은 사림의 대두와 함께 출현하였고, 또 함께 쇠퇴하는 동반자적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성균관 대성전(보물 제141호). 성균관 경내에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봄·가을로 제향하던 공간이며, 조선 초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01년(선조 34) 중건하였다.



## 2. 선비들의 보금자리, 마침내 등지를 틀다

### 2.1 궁리窮理와 독행篤行의 영혼이 숨쉬는 곳

역사상 최초의 서원은 당나라 현종 때 세워진 여정서원麗正書院과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이라고 한다. 이들은 서적을 구비한 일종의 관립도서관이었다.

천하에 서원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천여 년 전인 북송北宋 초기 백록白鹿·석고石鼓·응천應天·악록嶽麓의 4대 서원이 세워지면서였다. 현재 중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호남성湖南省 장사市長沙市的 악록서원岳麓書院이 스스로를 ‘천년학부千年學部’라고 부르며 역사성을 앞세워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어 남송南宋에 들어가서는 주희朱熹(1130-1200)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중건하며 서원의 제도를 확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활발한 강학 활동을 벌이게 된 뒤로부터 널리 보급되었다.

상해에서 양자강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중국 남동부 강서성江西省의 여산廬山이 나온다. 이 여산의 오로봉五老峰 아래에는 당나라 때 이발李渤(773-831)이란 학자가 숨어 살면서 흰 사슴을 기르고 후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후 그가 죽고 백여 년이 지나자 그의 옛터인 백록동에 여산국학이란 학교가 세워졌고, 다시 오십 년 후 ‘백록동白鹿洞’이라 이름한 서원이 섰다. 이로부터 다시 200여 년이 흐른 1179년, 비로소 주희가 인근 남강군의 태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주희는 황폐해진 백록동의 옛 자취를 찾아보고 관공의 힘을 빌려 서원을 중창한 후 스스로 동주洞主가 되었다. 이 무렵은 그가 나이 막 50에 들어서면서 사서학四書學에서 오경五經으로 그 관심이 점차 옮겨지던 때였다. 주희는 백록동에서 자신이 지은 『중용中庸』을 쉽게 풀이한 『중용장구中庸章句』를 직접 강의하는가 하면, 육구연陸九淵(1139-1192)·여조겸呂祖謙(1137-1181) 등 자신과 의견이 다른 학자들을 초빙해 강의와 토론을 벌였다. 무엇보다도



「백록동서원학규白鹿洞書院學規」를 마련하여 오류를 기본으로 하는 서원교육의 방향을 천명하고, 유생들이 수행해야 할 ‘궁리窮理’와 ‘독행篤行’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궁리’란 인성人性과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사유의 과정으로 곧 이학理學을 의미한다. 반면 ‘독행’은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었다.

주희의 이러한 활동으로 백록동서원의 존재가 중국 천하에 널리 알려졌고, 주자학이 점차 독보적 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서원은 마침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이후 명나라 때는 천하에 이름난 서원만 해도 300개 소가 손꼽힐 정도였다. 왕수인王守仁(1472-1528)이 용강龍岡과 계산稽山の 두 곳 서원에서 강학講學활동을 통해 양명학을 보급하였다든가, 동림서원東林書院 출신의 관료들이 이른바 동림당東林黨을 형성하여 16세기 명나라의 부패한 정치현실을 바로 잡으려 했던 사실 등은 자유로운 학풍과 강학 위주의 성격을 지닌 중국 서원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청나라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서원은 자유로운 학문풍토를 점차 상실하였다. 이제는 국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서 철저히 과거시험만을 위한 관학의 보조기구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원과 다른 큰 변화이다.

800여 년간 강학이 지속되었다는 중국의 백록동서원도 점차 서구적 가치가 들어오고 유학이 쇠퇴하는 세월의 바람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는 그 흔적마저 지우려 하였다. 최근 들어 겨우 부분적으로 복원된 오늘날 여산의 백록동서원은, 오직 궁리와 독행을 주장했던 주희의 영혼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뿐이다.

## 2.2 보금자리 찾는 조선 선비들

조선의 양반사족은 16세기 초 중종 대에 이르러 지배층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들을 모체로 하여 성리학을 배우며 실천하려는 사림이 형성되었고, 점차 사회적으로는 물론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사림의 형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을 교육하고 상호 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켜 줄 기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알맞은 기구로서 우선 생각되는 것은 중앙의 성균관과 4학, 지방의 향교이다. 그 중 성균관은 조선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사림의 인재들이 모여 학습하는 곳이었다. 성균관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졌고 정원도 제한되었다.

반면 4학과 향교는 각각 중앙과 지방에서 성리학에 뜻을 둔 유생들을 교육하는 중등교육기구였다. 그 중 4학에는 서울 사대부의 자제들이 다녔다. 그러나 향촌에 설치된 향교의 경우 그 교육여건은 크게 불리하였다. 시설도 그러한가 하면 향촌에서 교육을 맡은 학관學官(교수·훈도)들의 수준도 문제였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족의 자제들이 점차 향교를 기피하게 되어 봄·가을의 제사인 석전제 때나 출입할 뿐 외면을 받았다.

결국 사족의 자제들은 향교가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서재書齋에서 학습하였다. 저명한 학자나 퇴직한 관료가 사숙私塾으로 세웠기에 교육여건이 양호했고, 무엇보다도 사족 자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서재는 지역적 범위가 제한되었을 뿐더러 수적으로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공부에 뜻을 둔 유생들은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절에 들어가 학습하거나 토론하는 이른바 ‘상사독서上寺讀書’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재나 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개인적으로 몇 명 정도가 모여 과거에 대비해 독서하는 정도였지, 붕우朋友가 함께 경전을 익히고 토론하며 덕성德性을 갈고 닦는 주자학의 학습방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학습 외에도 사림들에게는 뜻을 같이하는 동류의식을 갖게 하고, 서로의 유대와 결속을 돈독하게 해줄 일종의 사교장 내지 보금자리가 필요하였다. 사림이 대두하던 시기인 성종 때 사림파를 대표하던 김종직金宗直이 유향소를 다시 세우고자 추진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유향소留鄉所란 원래 지방에 거주하던 유향 품관들이 모이는 자치 기구였다. 그러나 유향소가 행사하는 자치권은 때로 지방 수령의 통치권과의 마찰을 일으켰다. 그래서 태종 때 이를 모두 폐지했으나, 현지 실정에 어두운 수령首領의 보좌를 위해 세종 때 다시 부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들이 수령과 결탁하여 민폐를 끼치는 점이 문제되어 세조 말에 다시 혁파된 것이다.

그러나 사림의 성장 속에 이들의 향촌활동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지자 김종직은 바로 이 유향소에서 그 대안을 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유향소는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화 속에 사림의 세력형성을 경계하던 훈척의 탄압으로 별 효과는 없었다.

향촌에서 사림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광조趙光祖(1482-1519)등의 신진사류가 정계로 나오면서 다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유향소가 아니라 학교체제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혁신론이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사림들의 외면을 받는 향교에 대한 교육방식이 문제되었는데, 과거시험을 염두에 둔 학습은 선비들을 출세지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부정에 젖어버린 선비들의 풍토를 바로 잡으려면, 문장과 암송 위주의 경전학습이 아니라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덕성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풍토를 조성하려면, 먼저 모범을 보인 선배 유학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등 사람들이 받드는 유학자들의 위패를 공자를 제사지내는 문묘文廟에 같이 모셔야 한다고 한 것이다.

물론 조광조 등이 추진한 이런 학교제의 개혁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그들이 축출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사림계 인물의 제향과 인격을 갖춘 인간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더불어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림의 교제와 모임을 갖게 하는 보금자리로서 서원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은 이러한 과정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 2.3 백운동서원과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서원보급운동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서원은 경상도 영주시(옛 풍기군) 순흥에 있는 백운동서원이다. 서원의 시작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그는 고려후기 중국으로부터 주자학을 도입한 안향安珦(1243-1306)의 고향에, 또 그가 한 때 독서



안항 영정(국보 제111호). 1318년(고려 충숙왕 5) 경에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정으로, 1543년(중종 38) 후손이 백운동서원의 문성공묘에 봉안해 왔는데 1559년(명종 14)에 개수되었다.



주세붕 영정(보물 제717호). 16세기 중반 경 제작되어 1633년(인조 11) 소수서원의 문성공묘에 봉안되었다.

하였던 옛 숙수사의 절터에 문성사文成祠라는 사당을 세우고 그를 제사지냈다. 그리고 그 옆에 유생들의 과거공부를 위한 건물을 짓고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백운동서원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다.

그러나 주세붕의 서원에 대한 이해는 불충분하였다. 그는 향촌의 교화를 위해 안향과 같은 유학자를 제향하며, 특히 쇠퇴한 향교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서원을 활용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초기의 백운동서원은 안향을 제사지내는 문성사의 부속건물에 불과하였고, 그 학습방식도 과거공부에 편중되어 있었다. 주세붕 스스로도 과거합격자가 배출된 사실을 서원의 효과로 크게 자랑하였다. 때문에 백운동서원 초창기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친숙한 조선시대 서원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은 이 시기 사림의 영수이던 퇴계 이황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의 학문적 목표는 유학의 이상적 정치모델인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禹임금 3대의 태평성대를 현실에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른 곳으로 이끄는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교화教化, 즉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군주 또한 스스로 수양을 통해 만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과 함께, ‘교화’를 담당할 주체인 사림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했다. 68세의 노학자 이황이 자신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17세의 어린 임금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한 일종의 국정운영 매뉴얼이었다. 이처럼 임금에게도 성인의 학문에 정진하며 덕성을 닦을 것을 촉구했던 이황은, 사림에 대해서는 그 훈련의 구체적인 실천도장을 바로 서원에서 구하였다. 이황은 서원보급을 위한 주희의 노력에 크게 공감하였다. 그래서 황준량黃俊良(1517-1563)과 같은 문인들과 함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보이는 300여 개 중국서원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선 사회에 알맞는 서원제도를 구상해 놓고 있었다.

이황과 그의 문인들이 구상한 서원은 3대 학교제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이들은 향교와 같은 관학이 도회지에 설치되어 있어 번잡하였던데 비해, 서원은 한적하고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학습여건이 훨씬 양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학私學이기 때문에 지방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과거나 이권 등 현실적인 출세욕과는 거리가 먼 학습 분위기를 가졌다고 하였다. 즉 성인의 학문인 도학道學을 배우고 의리를 익히며 덕성을 함양한 사림을 양성하는 장소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구상 위에서 이황은 마침 풍기군수에 임명되자 서원을 설립하고 사림들이 모여 성현의 글을 읽고 토론하는 장을 열고자 했다. 서원을 사림양성기구로 공식화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우선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십분 활용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백운동서원의 운영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풍기 일대 유생의 사림화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이어 사림양성소로서의 서원을 공인화 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백운동서원에 대한 국가적인 사액賜額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경상감사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접하게 된 조정에서는, 먼 지방의 유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며 유학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이름으로 현판을 내리고, 약간의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탄생한 것이다.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은 사림의 향촌활동에 대한 국가적 공인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국가가 더 이상 사림을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한편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의 현판이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황은 향리로 물러나 성리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두하였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역동서원(예안), 이산서원(영주), 영봉서원(성주) 등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직접 참여하거나 문인을 파견해 지원하는 등 그 보급에 힘썼다. 선조가 즉위하기 전까지 세워진 서원이 전국에 23개 소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황은 그 반 정도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생각해 보면 수십 년 이래 사림은 향촌에서 그들의 보급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사림의 세력화를 우려한 훈구 척신들의 반대와 방해로 좌절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소수서원의 사액으로 이제 그러한 장애는 걷어진 셈이다. 수십 년에 걸친 사림들의 노력이 서원의 건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액으로 국가의 공인까지 이루어지면서 향후 발전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황과 그의 문인들이 있었다. 또한 이황은 서원의 건물의 구조를 학습과

수양공간으로서의 강당과 서재, 사표師表가 되는 인물에 대한 제향공간으로서 사묘祠廟를 기본틀로 정식화하였다. 나아가 서원 특유의 자율성에 토대한 강론과 토론 중심의 학습방식, 배운 것을 익히고 덕성을 함양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강학講學과 장수藏修이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생활규정과 독서법, 그리고 서원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조목조목 수록한 원규院規를 지어 앞으로 전개될 조선 서원의 방향과 체계를 마련하였다. 후대에 이황이 ‘조선의 주자’로 불리며 길이 존중된 것은 비단 그가 이기설理氣說로 대표되는 높은 학문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선구자적인 안목과 식견으로 장차 다가올 사림의 시대를 예측하고, 그 사회적 역할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서원은 유생의 독서와 강학뿐만 아니라 심신수양을 위한 유식遊息공간도 가져야 했다. 따라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자연환경과 풍치가 좋은 곳을 골라 자리하였다. 사진은 경주 옥산서원의 주변 전경이다.



### 3. 사람의 시대에 보이는 서원의 여러 모습

#### 3.1 사림활동의 바로미터-시대별 지역별 분포

서원은 조선시대 역사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 역사의 전개에 따라 발전과 변화,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 성쇠의 과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서원건립의 추세를 살펴보자.

아래의 표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서원을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이후 명종 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선조연간(1557-1608)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숙종연간(1674-1720)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서원은 영조 대를 고비로 그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는 1741년(영조 17)에 단행된 대대적인 훼철을 수반한 강력한 통제책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시대별 서원 건립·사액 수

연대	건립수(사우)	사액	연대	건립수(사우)	사액
중종38년(1543)	1(-)	-	숙종(1675-1720)	166(174)	131
명종(1546-1567)	22(13)	4	경종(1721-1724)	8(20)	-
선조(1568-1608)	63(22)	21	영조(1725-1776)	18(145)	13
광해군(1609-1622)	29(9)	15	정조(1777-1800)	2(6)	13
인조(1623-1649)	28(25)	5	순조(1801-1834) 이후	1(1)	4
효종(1650-1659)	27(10)	10	미상	7(43)	-
현종(1660-1674)	46(19)	44			
합 계				418(487)	260

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서원의 변천을 살펴본다면 그 시기를 크게 1) 초창기 중종-명종 시기, 2) 선조-현종 시기의 발전기, 3) 숙종-영조 초 시기의 남설기, 그리고 4) 1714년(영조 17)의 정비령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모두 23개 소가 건립되었던 1)의 시기는 ‘초창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소수서원(순흥)과 남계서원(함양)을 비롯하여 임고서원(영천)·문헌서원(해주) 등 4개 소의 서원에 사액이 내려졌다. 이 시기 서원이 이미 사람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장차 서원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이 시기 서원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정으로 각기 별도의 원규院規를 마련한 것이다. 원규는 이황이 영주 이산서원伊山書院을 위해 지은 독서·강학의 원칙과, 서원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수칙, 그리고 서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이산서원 원규를 모범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약간씩의 별도 규정을 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서원 본래의 입교立敎 정신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주희가 지은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강당 벽에 게시하게 하는 것도 이때에 정착화 되었다. 다음으로 서원은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이 추진되었다. 서원의 운영을 위한 서원전과 노비의 확보, 물고기나 소금 등의 현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해당지역 지방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는데, 특히 초창기 서원의 재원마련은 관찰사에 의한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결국 명종 말 선조 초 중앙정계에 활발한 사람의 진출은 바로 이러한 서원의 건전한 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은 2) 선조-현종에 이르는 ‘서원의 발전기’이다. 마침내 ‘사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로 그 사림을 양성하고 그들에 의해 운영되며, 활동의 근거지가 된 서원이 확대되고 발전하였던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양적으로 볼 때 서원은 선조에서 현종 말까지 106년(1568-1674) 간 약 200여 개 소가 설립되었으며 사액된 곳은 95개 소였다. 이는 초창기 명종까지의 서원 건립이 20여 개 소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별로도 경상도에 집중된 것을 벗어나 차츰 전라도와 충청, 경기도는 물론, 한강 이북지역에 까지 확산되었다.

이 시기 서원은 질적으로도 발전하였다. 특히 2세대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이 크게 눈에 띄었다. 이들은 퇴계 이황을 비롯하여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 율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 등

저명한 유학자의 학통을 계승한 문인들이었으며, 때문에 자신들의 스승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미 세워진 곳을 근거지로 하여 강학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조선후기 학계를 양분하는 영남학과와 기호학파의 형성은, 바로 이 시기 학통과 사승(師承)관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3)의 숙종-1741년(영조 17)까지는 바로 ‘서원의 남설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66년간 서원은 전국적으로 192개 소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목되는 현상은 사우(祠宇)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우는 본래 충절인이나 향현(鄉賢)을 제향하는 교화기구이니 만큼 사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원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무분별한 서원의 건립이 문제되어 금령(禁令)이 강화되자 명칭을 사우로 바꾸어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서원과 사우는 그 구별 자체가 모호하여졌고 일반 사람은 물론 국가에서도 사우를 서원으로 통칭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별 분포도

사우를 포함한 통칭 서원의 숫자는 영조연간에 이르면 그 누계가 900개 소에 가깝게 된다. 조선시대 변방을 제외한 일반 군현의 수가 대개 300여 개 정도이므로, 평균 1개 고을에 3개의 서원이 있는 셈이다. 서원의 이러한 수적 증가는 여러 가지 병폐를 낳았고, 결국 영조연간 전국 서원에 대한 일제 정비령이 내려져 173개 소가 획철되고 말았다. 이후 국가통계상에 서원의 건립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 각 문중門中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서원건립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데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별 분포는 어떠할까? 서원의 지역별 분포 역시 조선시대 각 지방별 양반사족들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앞의 그림은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의 수를 지역별로 표시한 것이다. 경상도(서원 173, 사우 151)를 위시한 전라도(서원 77, 사우 108), 충청도(서원 60, 사우 58)지역이 전체의 70% 정도(서원 310, 사우 317)를 차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삼남지방을 일러 조선양반의 본거지라고 하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서 보이는 서원의 집중도는 매우 두드러진다. 조선 유학의 초창기를 영남출신의 유학자들이 주도한 이래, 경상도를 조선의 ‘추로鄒魯(맹자와 공자의 고향)’로 자부하여온 만큼 사람의 활동도 활발했고 때문에 서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말기 명문 풍산홍씨 출신으로 돈녕부 도정을 지낸 홍한주洪翰周는, 그의 『지수염필智水拈筆』이라는 저술에서 “영남양반들은 기회만 있으면 조상을 위한 사묘를 세우고 문집을 간행하는데, 이는 양반 지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이다.”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사실 인조반정(1623) 이후 서인西人이 계속적으로 집권하였던 관계로 남인南人이 대부분인 영남사람들은 관직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양반의 첫째조건이 관직이므로, 벼슬을 하지 못하면 결국 신분유지가 위태로워진다. 때문에 영남양반은 차선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려 하였고 그것은 학문인, 곧 유학자를 배출하는 것이었다. 앞서 홍한주의 다소 시니컬한 비판도 이해가 되지만, 당시 영남양반에게는 현실적 이해가 걸린 절실한 문제였다. 지도에서 보듯이 경상도에 서원이 타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분포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는 호남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자세히 검토해 보면 호남은 서원보다는(77개 소) 사우로 칭해지는 경우(108개 소)가 더 많다. 대개 서원과 사우를 합해 서원으로 통칭했지만 서원이 유학을 배우는 궁리窮理에 초점을 두었다면, 사우는 배운 의리의 실천에 더 중점을 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향사되는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영남은 학문인이, 호남은 충절인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1799년(정조 23)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비롯한 국난에서 나라를 위해 순절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호남절의록』이 편찬되었던 데서도 보듯이, 호남유학의 특성은 국가를 위해 불의에 저항하는 투철한 실천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후기 이래 호남은 충절서원, 영남은 도학서원이 많다고들 말해왔던 것이다.

한편 황해도에 상당수의 서원이 건립된 것은 울곡 이이가 해주 석담石潭에 거주하면서 문인들을 양성하였던데 배경이 있다. 나머지 강원도와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지방관이 주도적으로 유교적인 교화를 펴고자 유생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원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서원은 8도에 두루 분포했으나, 각 지방 양반사족이나 사림의 성향과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성격과 모습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3.2 선사先師의 학설을 이어받아 꽃피운 유교문화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학자마다의 학설은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져 내려와 학파가 형성되는데, 주희의 고정학파考亭學派와 육구연陸九淵의 상산학파象山學派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학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거점으로 서원건립은 필수적이었다. 이런 경우 서원의 본질이 아무리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강학講學이라 하여도, 각 학파의 특색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개조開祖를 기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형태는 선사先師를 제향하는 사묘를 서원 경내에 부설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사의 학설을 계승하기 위해 세우는 서원은 평소 선사가 강론한 곳과 같은

연고지를 찾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인이나 제자가 자신이 강학하기 위해 세운 서원에 선사의 위패를 봉안하기도 하였다.

중국서원의 이런 추세는 이황과 그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서원이 강학과 장수를 위한 기구임을 누차 강조한 이황 역시, 현실에서 서원을 세울 때는 그 계기를 사림계가 존봉하는 인물의 연고지에서 구하였다. 경상도 성주에서 고려 말의 학자 이조년李兆年(1269-1343)을 제향한 영봉서원迎鳳書院을 건립할 때, 이곳이 김굉필金宏弼(1454-1504)의 처향妻鄉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연고를 들어 함께 제향할 것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예안출신의 우탁禹倬(1262-1342)에 대해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없다는 것은 예안 사림의 수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역동서원의 건립을 독려했던 것도 좋은 예가 된다. 이황의 이러한 방침은 그 문인들 역시 이를 따랐을 것이다.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이황이 제향된 서원은 모두 31개 소이다. 이 중에는 도산서원처럼 처음부터 이황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곳도 있고, 이미 세워진 서원에 추향한 경우도 있다. 이는 퇴계학과만의 경우는 아니다. 이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이 또한 자운서원(파주)을 위시해 20여 개 소가 넘는 곳에 제향되었다. 후대의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제향하는 곳은 50여 개 소가 훨씬 넘는다. 어느 경우나 후학에 의한 존모의 열기가 서원건립으로 나타났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서원이 선사의 제향을 계기로 세워졌다하여도 강학講學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였다. 제향에 의해 선사의 학설과 학통을 계승한다는 목적은 구체적인 강학활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강학의 형태로는 고과考課(Lesson)형, 연습演習(Seminar)형, 강회講會(Symposium)형이 있다.

고과형이란 경전을 놓고 학생이 구절을 풀이하면 교사가 이를 논평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적인 학습방식으로 관학이나 사숙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것보다 정도가 높은 것이 강독을 하면서도 선생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수강생 사이의 토론과 논란을 거쳐 경전의 본의를 탐구하는 연습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강생의 학습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향리에서 이름 있는 선배나 장로가 참석해 후배를 격려하고 토론을

활성화하였다. 고과형을 지금의 학부강독에 비유한다면 연습형은 석박사 과정의 세미나라고 하겠다.

강회형이란 저명한 학자가 다수의 학인들 앞에서 자신의 학설을 발표하고 변론하는 일종의 학술발표회 형식이다. 주희와 육구연같은 대학자가 각기 무이정사武夷精舍나 상산서원象山書院에서 수천 명의 선비들을 모아놓고 경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학설을 발표하던 데서 유래하였다. 주자학이나 명나라 양명학의 발달은 주로 이러한 강회형 강학활동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서원에서의 강학 역시 이런 3가지 형태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중국에 비해 학문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의 폭이 좁았고, 이단에 대한 배척의 강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설이 논쟁을 벌이는 강회형은 드물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서원에서 행해지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고과형으로, 향리의 선배학자나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강학을 담당, 후진을 단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원에서는 유생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기·수양을 더 강조하는 편이었다. 강학은 성현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고, 그 가르침을 체득하여 실천하는 장수藏修가 보다 더 중시된 것이다. 그러기에 유학자 이외에도 절의와 행실이 뛰어난 인물들을 제향인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서원에서의 강학과 장수를 통해 유생들은 사림의 일원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아마도 이황이 구상한 서원강학의 이상적인 형태는 연습형, 즉 오늘날 세미나식의 학습방식이었을 것이다. 그 스스로도 생전에 역동서원에서 문인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 『심경心經』을 강론하고 그 뜻을 토론하였다. 그 문인 이덕홍이 남긴 『심경강록心經講錄』 등은 이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러한 교육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1850년(철종 1) 도산서원에서 가까운 청량정사에서 개최된 청량강회淸涼講會이다.

도산서원 원장 이한응李漢膺의 주최로 영남 내 유력가문의 자제 600여 명이 참여한 이 강회는, 사서 중의 『대학大學』을 텍스트로 정하여 각 장의 뜻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3일간 계속되었다. 이 때 강회를 주관하는 훈장 아래 집례執禮와 사정司正, 직일直日과 집사執事 등의 조직을 두었으며, 동·서 반열로나뉜 유생들을 통솔하는 반수班首가 따로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도내의 유명

인사들이 맡아주었는데, 판사 이휘령, 참판 이효순 등의 원로 관인까지도 참여해 후학들을 격려하였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원에서 심포지움형의 강학형태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1892년(고종 29) 경상도 예천에서 설행된 오천강회(浣川講會)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오천강회를 주관한 이만인은 이황의 후손으로 당대에 퇴계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강회에서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문집이 나오자 그의 ‘심즉리(心卽理)설’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대체로 이황의 주리적 견해를 옹호하고 율곡학파의 심즉기(心卽氣)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피면 퇴계학의 뿌리를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학설이 이황이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마음이 성(性[理])과 정(情[理氣])을 합한 것”에 모두 통한다.”라고 한 주장과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심즉리라는 주장 자체가 당시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양명학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도 심각하게 의심 받았다. 결국 오천강회에서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변화되었고 심합리기(心合理氣)를 핵심으로 하는 퇴계학설은 재천명되었다. 서원에서의 강학이 선사의 현양과 함께 그 학설의 계승과 변호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시대에 서원에서는 유생 스스로 학문에 힘쓰는 물론 저명한 유학자나 그 문인들에 의한 강학활동이 계속되었다. 학파의 형성은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성립된 학파의 확산을 위해 제향기능도 강화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서원이 사람의 양성기구로서 학교의 성격을 확립한 것도 이러한 장수·강학·제향 기능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후기 학계를 양분하는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역시 이런 풍토 위에서 전개되었다.

### 3.3 향촌사림의 활동무대가 되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면 서원은 더 이상 학교로서의 존재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림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서원은 향촌에서 정치·사회적인 활동을 벌이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서원은 향촌사람들 사이에 안면을 익히고 교제를 틔우는 사교장의 구실을 하였다. 물론 유생들은 서원에 기숙하면서 함께 학문에 힘쓰며 봉우의 도리를 맺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고을이나 거주지가 먼 타지 사람들과의 교류는 쉽지 않았다. 이제 서원이 삼남을 위시해 전국에 널리 보급되면서 그 가교적 장소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는 『심원록(尋院錄)』이 비치되어 있다. 이는 서원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본관과 성명, 그리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방문록이다. 각 서원의 『심원록』을 살펴보면 역시 대부분이 인근 고을의 인물들이며, 혹 타지인이라도 대개는 제향인물의 후손이나 외손들이다. 그러나 도산서원이나 돈암서원(충청도 연산)과 같은 이름난 서원의 『심원록』에는 관리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서울 명문가의 자제들의 이름도 보인다. 심지어 도산서원에서는 저 멀리 평안도 땅에서 관서부자라고 불리는 선우협(鮮于浹, 1588-1653)이 수천 리 길을 돌아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그는 이황의 사당에 참배하고 몇 달 간 서원에 유숙하면서 예안·안동일대의 사람들과 교제를 넓혔다고 한다. 이처럼 『심원록』에 기록된 명단들을 잘 분석해 보면, 서원이 향촌사람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이 지역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세미나 내지 심포지움형의 강회나 춘추 향사 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도산서원 중심의 청량강회에는 영남 내 유력가문의 자제 6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또 1733년(영조 9) 임금이 특별히 도산서원의 상덕사(尙德祠)에 사신을 보내 치제할 때는 원근에서 참례한 사람이 8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강회와 향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통해 지방 또는 경향의 사람 사이에 친교를 맺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서원이 향촌사림의 정치사회활동의

주 무대가 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러한 인적 유대와 결속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사림의 집권 이후 발생한 붕당은 대체로 이와 같은 학연을 매개로 한 학파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황의 문인이 주축이 된 영남학파가 남인南人으로, 화담 서경덕이나 조식의 학맥은 북인北人, 그리고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인 기호학파가 서인西人이 되었던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각 학파의 형성 거점으로서 서원은 곧 붕당결성의 토대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의리명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 향촌별 사림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하였다. 결국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서 서인이 추진한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논의를 들 수 있다.

문묘文廟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제향하는 사당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자의 제자와 후대의 저명한 유학자들의 위패도 함께 모셔졌는데 이를 종사從祀 또는 승무陞廡라 한다. 선조 대 사림들의 사표였던 조광조나 이황과 같은 조선유학자도 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문묘에 종사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영광임은 물론, 문인이나 학파 전체에도 학문의 정통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파가 곧 당파로 인식되던 붕당정국에서는, 자신들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유학자가 문묘에 종사됨으로서 집권명분과 정치적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때문에 인조반정 후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은 그들의 학문적 연원인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을 두고 이미 문묘에 종사된 이황을 앞세워 우월함을 과시해 온 남인계가 가만있을 수는 없었다. 먼저 성균관의 남인계 유생들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서인계가 이를 묵살하고 밀어 붙이자 마침내 영남유생 유직柳湲을 대표로 한 950여 명이 연명한 상소가 조정으로 올라왔다. 이이는 불교에 물들었고 성혼은 선조에 의해 간신으로 배척되었다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유생들이 한꺼번에 이름을 연명한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 유적이 남긴 기록에는 종사반대론을 세우고 통문通文을 돌려 여론을 수렴하며, 마침내 상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까지 받들고 가 임금께 올리는 인원과 비용의 부담 등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하다. 역시 이 일에는 안동의 여강서원을 중심으로 영남 내의 수십 개 서원에서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효종의 승하에 따른 상복喪服 문제에 서인과 남인이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예송禮訟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원은 이제 본래의 강학과 장수, 존현의 기능 외에도 사림의 정치적 활동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서원에서 의 사림활동이 중앙의 정치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림은 기본적으로 향촌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중앙정계의 정치적 문제보다 향촌 사회에서의 현안이 더 먼저였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이는 42세가 되던 1577년(선조 10)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석담에 은거하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이때 그는 사대부가 향리에 거처하면 ‘예로써 풍속을 좋게 한다’는 주희의 가르침대로 향약鄉約을 실시하고자 하여 규약을 만들고 사창社倉을 설치하였다. 향약 시행과 운영의 주체는 물론 사족으로 하였는데, 임원의 선출과 향약의 조직, 의식의 거행, 사창의 운영·관리 등을 모두 서원을 통해 운영하였다. 향약으로 대표되는 사림의 향촌활동 일체가 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점으로부터 본다면 서원은 조선 초기 유향소와 흡사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이가 해주향약에서 보이는 서원의 이러한 모습이 사림의 시대에 보편적인 형태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서원에서 향촌민까지 모여 향약관련 행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사당鄉射堂이나 향회소鄉會所와 같은 향약시행에 알맞은 자치적 조직이 이미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사림이나 사족과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는 서원에서 논의되고 때로는 행동에까지 옮겨졌다. 그러한 예는 1626년(인조 4) 도산서원 원장으로 있던 이유도李有道的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이유도는 재산과 관련된 송사로 경상감사로부터 심문을 당하는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에 도산서원의

이름으로 각 고을의 서원들에 통문을 보내어 억울한 사실을 알리고 감사를 배척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조정의 탄압과 인근 서원들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관계로, 경상감사와 통문의 주동자가 함께 처벌을 받아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수습되었다. 그러나 지방관의 부당행위에 의한 사림이나 사족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원이 중심이 되어 이를 변호·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알 수 있다. 이 역시 종전의 유향소가 수행하였던 기능이였다. 요컨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림의 사회활동은 사교적인 모임과 함께 향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해 향론<sup>향論</sup>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서원은 본래 유생이나 학자들이 모여 함께 강학하는 학교로서 출발하였다. 그런만큼 강학공간인 강당은 서원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다. 사진은 도산서원의 전교당에서 유림들이 모임을 갖는 모습이다.



## 4. 왕조의 주름살에 드리운 실루엣

### 4.1 지나친 남설과 흔들리는 ‘사람의 시대’

이러한 서원도 숙종 이후에 들어서면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서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남설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숙종 일대 46년 간 건립된 서원은 모두 170여 개 소를 헤아릴 정도이다. 여기에 벌써 서원과 별다른 구분이 없어지게 된 사우(祠宇)의 수(180여 개 소)까지 합하면 실로 350여 개 소에 이르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양적 팽창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향인물의 선정도 원칙이 무너지고, 자격 없는 자가 노골적으로 선정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정쟁에 희생된 인물이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유생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제향되었다. 잦은 정쟁에 희생된 자기파 계열의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였고, 서원의 기능이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제향위주로 전환되면서 남설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단지 자손이 귀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제향인물에 선정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이제 서원이 그 발전기를 지나 폐단을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원의 이러한 변화는 봉당간의 정쟁이 격화되고 경제력의 성장에 따른 사회 변동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이유로 엄격했던 서원의 운영이 한 번 고삐가 풀리자, 건잡을 수 없게 변하였다. 서원은 이제 사람의 공론과 무관하게 향촌사회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인물을 제향하는 사당(祠堂)으로 변화하였다. 이제 ‘사람의 시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서원의 이러한 남설은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를 불러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였다. 특정인물에 대한 제향이 우선되다 보니 본래부터 제향의 기능만 가졌던 사우와 혼동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우 역시 제향 공간 외에 소규모나마 강학공간을 추가하는 경향이 일어나 이러한 변화를 부채질하였다. 이제 서원

은 사우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기능면에서는 거의 흡사해졌다. 더욱이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그나마 부진하던 강학활동은 더욱 위축되었고, 유생장수의 풍경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어 버렸다. 이제는 서원의 기능을 회의적으로 본 서원무용론書院無用論까지 등장하여 뒷날 서원 철폐의 한 명분이 되고 말았다.

## 4.2 서원의 폐단과 향촌사림의 분열

서원의 폐단에 대해서는 이미 임진왜란 때 선조가 글만 가지고 떠드는 문승文勝의 폐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인조 때는 부적격자의 제향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1657년(효종 8) 충청감사 서필원은 서원이 향교를 쇠퇴하게 하고 제향인물의 시비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며, 군역폐를 초래하는 원인이자 제수祭需 부담으로 인한 관청경비를 소모시킨다는 등을 이유로 그 폐단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향교의 쇠퇴란 사림이 서원을 근거로 하다 보니 국가에서 세운 향교가 외면을 받아 학교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향인물 시비란 과연 그 인물을 서원에 제향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둘러싼 시비 논쟁을 말한다. 제향시비는 대부분 당론黨論이라든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향촌 사림의 분열을 불러오고 때로는 향전鄉戰이라 칭해질 정도로 격렬한 대립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군역의 폐단이란 말 그대로 서원이 16세 이상의 양인 남성들을 점거하여, 국가에 군역을 저야 할 군사재정을 축내게 한다는 것이다. 원래 서원에 적을 둔 원생院生은 군역이 면제되었고 또 수십 명 정도의 인력, 즉 원속院屬이 배속되어 지방관의 묵인 하에 잡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서원들이 각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다는 구실로 돈을 받고 원생을 원속으로 삼는 불법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서원의 크기에 따라 그 수가 수십 명에서 때로는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수령 역시 그것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림의 반발이 두려워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했다. 조선 후기에 백성에게서 거두는 부담들을 보통 삼정三政이라 하는데 그중 군정이 가장 큰 폐단을 불러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군정의 폐단을 논하는 사람들마다 서원의 양정 점거를 거론한 것을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수부담이란 서원에서 지내는 춘추의 향사享祀에 지방관이 제물을 부조하는 것이다. 사액서원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미사액서원은 실제 부조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령들은 향촌사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수와 물품을 보냈다. 문제는 한 고을에 10여 개 소가 될 정도로 서원의 숫자가 많았다는데 있었다. 안동 같은 경우는 무려 40개 소를 넘는 서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가뜩이나 영세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서필원이 올린 서원폐단 상소는 일부 대신들의 지지를 받아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숙종 말까지의 국가시책은 사림과 도학道學을 일으킨다는 원칙론이 우세하였기에 서원장려책의 방향을 별반 벗어나지 못했다.

#### 4.3 영조, 대원군으로부터 철퇴를 맞다

서원에 대한 통제책이 본격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173개 소의 서원과 사우를 훼손한 영조 때부터였다. 영조가 이처럼 강경책을 취하게 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숙종 연간의 남설로 인한 영향 때문이었다. 1741년(영조 17)을 시점으로 전국의 서원은 1,000개 소에 육박하였고, 앞서 언급한 서원의 각종 폐단도 그에 비례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영조의 탕평책 실시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탕평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조는 붕당간의 정쟁을 유발하고 격화시키는 요소를 찾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탕평파에 의해 당쟁유발의 주요인으로 간주된 서원에 대한 훼손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표에서와 같이 이 시기 이후 서원의 건립은 크게 꺾였다. 이후 서원에 대한 통제책은 정조와 철종연간에 다시 몇 차례씩 시행되어 상당수의 서원들이

철폐되었다. 그것은 주로 이 시기 서원이 보였던 두 가지 폐단 때문이었다.

하나는 서원이 미치는 사회적 폐단이었다. 금령의 강화는 지방관이 서원에 지원하는 물질적 혜택을 거의 단절케 함으로써 서원재정을 악화시켰고 끝내는 대민작폐를 불러오게 하였다. 당대의 집권세력에 의해 다소 과장되기는 했지만, 화양동서원이 자행했다는 횡포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 서원이 제향인의 후손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사림의 공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에서 점차 한 문중의 사적기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8세기 이후 사림과 함께 향촌사회를 유지해 오던 사족상호간의 결속과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제 양반에게는 사회적 지위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보호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자 혈연적으로 보다 가까운 족적결속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 시기 현저해지는 족보의 성행과 문중계門中契·족산族産·묘위토墓位土 등의 문중조직, 특히 혈연공동체로서의 동성촌락의 발달이 이를 말해 준다.

서원에 문중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였다. 기존 서원에 자기 조상을 제향시키려는 과정에서 문중 간에 향진鄉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문중의 힘을 모아 자기집안의 이름난 인물이나 중시조仲始祖, 입향조人鄉祖를 제향하고, 이를 문중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문중 서원은 그 자체로서는 일정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서원 본래의 기능에서는 상당히 멀어지고 말았다. 이제 탕평책으로 사림정치의 이념이 부정되고,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양반의 지위가 동요하는 상황 속에서 ‘사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그 토대인 서원 역시 유명무실한 존재로 쇠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홍선대원군에 의한 대대적인 서원 훼손은 어쩌면 예정된 운명이었다. 실추된 왕권의 회복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체제의 정비를 꾀하던 조정에서는, 지방 세력의 통제와 이러한 폐단을 명분으로 서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남은 서원은 문묘에 종사되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제향하는 47개 소 뿐이었다.



## 5. 서원은 정녕 구시대의 유산일 뿐인가

우리나라에서 답사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적지를 찾는다면 그 대상은 십중팔구 사찰관련 유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전해오는 문화재도 많고 세속의 번뇌를 피어오르는 향연香煙 속에 띄워 보낼 경건함이 우리나라에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은 어떠한가. 도포 입은 유생의 모습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거니와, 몇몇 유수한 서원에 관광객만 서성일 뿐이다. 이것이 급속하게 달라진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때문인가, 아니면 서원이 정녕 구시대의 유산으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야만하기 때문인가.

최근 중국에서는 유교의 바람이 다시 분다고 한다. 한동안 홍위병에 의해 봉건주의 사상의 원흉으로 낙인찍혀 사당이 폐쇄되는 수모를 겪은 공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서는 ‘개방에 따른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으로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충족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해설을 달았다. 한편 한류드라마의 유행과 관련해 어떤 학자는 ‘중국인들은 이를 통해 전통적인 중국의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한 반면, 일본인은 주로 청춘남녀의 순수 애정드라마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애정드라마에 열광한다는 일본보다, 다시 부는 대륙의 유교바람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보수적 역사관에 젖은 탓일까?

우리가 아는 한, 서원은 청산되어야 할 유산은 아니다. 서원에는 철저한 극기克己에 의해 인간본성의 착함을 지키며, 겸양의 미덕으로 인격체의 완성을 도모하던 사람의 이상이 잠들고 있다.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던 조선 선비의 기개와 의지가 서려있기도 하다. 판소리, 사물놀이와 같은 민중문화는 찾아지지 않는다 해도 유가儒家 최상승의 경지에서 창조된 형이상학의 사림문화가 또한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 서원 속에는 이렇게

한때 우리들로부터 외면되고 잊혀진 양반들의 젊고 활력 넘치는 모습과 정신문화가 우리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격심한 변화와 변동을 겪고 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사회구성원 간의, 또는 신·구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조화와 타협 대신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인성(人性)의 회복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감지되는데, 산사의 동안거·하안거나 교회의 피정과 수련회가 그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인심의 추세가 이와 같다면 유가(儒家)에서도 바로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천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우리 유학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신적 공황에 빠진 이 사회의 구원 요구에 적절히 답한다면, 전통 유학의 현대적 중흥이 가시권에 들어오리라 본다.

이렇게 되는 경우 유학의 한 줄기인 서원 역시 그동안 문중의 그늘에 가린 채 침묵과 퇴영을 강요받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학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연구와 토론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서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서 직면하는 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있다. 공통의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과 논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학의 현대적 부활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바쁜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련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대다수의 서원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하기도 하려니와 산수가 함께 어우러진 풍광도 좋다. 오랜 전통과 유가적 분위기에서 오는 절제, 조화와 정제성이 더욱 그 효용성을 높여 주리라 본다.

매연이 심할수록 맑은 공기가 그리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짓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는 도덕률은 고사하고 가치관마저 극도로 혼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서원에 새삼 주목하여야 할 까닭은 여기에 있다. 울곧은 선비의 양심과 기개는 만인의 심폐가 갈구하는, 깊은 숲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신선한 산소와 같은 것이다.





소수서원 죽계 옆의 '경'자 바위[敬石].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주자성리학 공부의 핵심인 '경'자를 바위에 새겨 유생들을 독려하였다.















여러 겹 꽃잎으로 둘러싸인 화심花心 형국의 도산서원 입지 경관

전국적으로 수백 개 분포하는 한국 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립 교육기관이다. 서원의 교육기능은 쇠퇴했지만, 선현을 제향하는 존현尊賢 전통과 산수경치와 어울린 경관이 한국 서원의 고유성과 탁월성을 보전하고 있다. 서원의 경관에는 유교가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다. 유교의 천인합일 세계관과 교학정신 그리고 예禮 사상을 서원 경관에서 읽을 수 있다.

## 1. 천인합일의 세계관과 서원 경관

대부분의 한국서원은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에 가깝고 산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입지한다. ‘산수 경치가 아름답다’는 말은 주위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연과의 조화’에는 서원 설립을 주도한 유학자 계층의 지리관, 세계관, 심미관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우선 주위 지형지세와의 조화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세계관과 풍수적 지리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학자들은 천인동구天人同構·천인합일天人合一의 세계관을 가졌다. 천인동구란 지구와 같은 세계와 인간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라는 관점이다. 천인합일이란 대자연을 운행하는 이념적 질서인 천리天理가 있고, 인간(사회)은 천리와 조화·합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세계관이다. 성인聖人은 이 조화와 합일을 성취한 사람이며,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모든 사람은 천인합일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해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성인을 닮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서원을 설립하고 서원에 출입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그들의 지리관, 세계관, 심미관에 따라서 서원의 경관을 조성했다. 풍수적 지리관에 따라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을 명당明堂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원의 외부는 담장을 두르고 마당은 건물로 둘러싸서 편안한 내부 장소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서원에서 내다보는 경관을 중시하였다. 서원 전망 경관은 서원 앞의 시내와 들관, 그리고 마주보는 산들로 구성된다. 이 시내와 들관, 그리고 산들은

평화롭고 풍요하거나, 시원하게 트여 막힘이 없거나, 생기 넘치고 빛나는 풍경이다. 이 경치는 천리가 유행流行하고, 공경하며 사심 없는 군자의 마음이 투영된 아름다운 경관이다.

## 1.1 유교적 경관의 특성과 해석 코드

서원 경관은 유학자들의 세계관과 윤리도덕을 상징하고 전파하는 기호 경관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나 불교의 사원 경관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신상神像 불상佛像과 같은 기호 경관을 통하여 외적으로 아름답고 탁월한 감동을 준다. 그러나 유교의 경관은 화려하거나 거대하지 않다. 서원도 일종의 종교적 경관이고 상징체이지만, 기표記標 즉 외적 형태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유교적 경관의 특징은 문자 기호 등 기의記意 중심의 상징작용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서원의 건물은 웅장 화려하지 못하고 소박 검약하거나 절제된 경관이다. 보는 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외적 탁월성이 모자라는 경관이다. 서원 경관의 상징성을 잘 알기 위해서는 유교 경관으로서 서원 경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원 안팎에는 건물 뿐 아니라 많은 상징적 장소가 있다. 이들 장소 대부분은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뚜렷한 형태적 상징이 부족하다. 깊은 의미가 함축되었다는 장소의 이름과 이를 부연 설명하는 시문 등 문자로 된 의미 기호가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서원 경관은 시각적 지각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이해되는 문자 기호 경관이다. 서원의 전망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문루 현판과 대廳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하고, 건물들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물 공간배치의 예제와 당호堂號 현판의 교학적 의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서원 경관은 유교 경전과 같은 텍스트에 함축된 설명원리(코드)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학습해야 상징성이 드러난다. 서원 경관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설명원리는 인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은 신유학에서 천인합일天人合一로 이해된다. 천지자연과 인간 마음의 감통感通이 천인합일이다. 모든 정신적 합일은

공감의 즐거움을 준다. 유교적 합일감은 신앙이나 깨달음이 아닌 학습을 통해 얻어진다. 서원의 입지와 좌향, 건물의 배치, 건물의 이름堂號 등 서원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천인합일로서 인을 체득하기 위한 교학적 상징물이다. 이러한 교학적 상징체계로서 서원 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원리를 제시해 본다.

**선현 추모와 서원 입지** | 중국의 주희는 백록동서원을 읊은 「백록동첩白鹿洞牒」에서 서원은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로부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야 은둔隱遁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저술을 하기에 좋다고 정의한다.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도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조정에 상주토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서원이 향교와 달리 시내에서 떨어져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하고 선정先正의 자취가 남아 있는 연고지에 서원을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즉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다투어 본받아 진실로 선정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최충崔冲 · 우탁禹倬 · 정몽주鄭夢周 · 길재吉再 · 김종직金宗直 · 김굉필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서원을 건립하자고 한다. 그렇게 하면 “장차 우리 동방 문교文教가 크게 밝아져 추로鄒魯나 민월閔越과 더불어 훌륭한 나란히 일컫게 될 것”이라 하였다(『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9: 서 「상심방백통원上沈方伯通源」).

중국의 주희와 조선의 이황은 공통적으로 서원의 입지는 관학官學인 향교와 달리 도시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산수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과거科擧와 같은 입신출세의 유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황은 입지 조건에 선현의 연고지를 추가하였다. 특정 유학자를 제향祭享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을 중시하는 한국 서원의 전통은 결과적으로 선현의 유적지에 서원 건립을 주장한 이황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주희와 이황의 서원관에 따라, 후대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회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수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롭게 학문을 닦고, 사당을 지어 경모하는 선배 유학자를 제향하는 것을 서원의 전통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서원의 입지를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서 찾자면, 산간계곡이 선호된다. 산간 계곡의 경사지 지형에서 학문하는 강당을 앞에 두고 선현을

제사하는 사당을 뒤에 배치하는 이른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공간배치가 자연스럽다.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지형에서 ‘전학후묘’의 건물 배치가 존현尊賢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앞이지만 낮은 곳에 있는 강당과 뒤에 있지만 높은 곳에 위치한 사당의 위계적 공간 배치는 학문하는 선비와 그 사표師表가 되는 선현先賢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상징한다.

**풍수적 사고** | 유학자들이 서원을 세우는 장소를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은 사표로 삼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와 아름다운 산수 경치였다. 이렇게 대략적인 입지 장소가 정해지면, 주위 지형과의 조화를 고려해 서원이 건립될 정확한 위치와 좌향坐向을 결정해야 한다. 현존하는 많은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풍수적 사고가 위치와 좌향 결정에 묵시적, 명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자와 풍수가는 모두 생기生氣를 중시하고 생기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감응天人感應을 인정한다. 따라서 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 땅의 생기에 감응하면서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하나가 되는 합일감合一感을 느낄 수 있도록 서원의 경관을 만들고자 했다.

옥산서원 세심대. 더럽혀진 마음을 흐르는 물에 씻어내어 마음을 맑고 밝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풍수적 사고가 서원의 입지 선택과 경관 구성에 미친 구체적 영향은 무엇보다도 먼저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을 서원 입지와 경관의 기본 요소로 만든 점이다. 나아가 땅에서 생기를 구하는 풍수적 사고는 이어지는 산줄기를 뒷산으로 선택하고, 다시 낮은 산지로 둘러싸인 곳에서 물을 바라보며 기氣를 보존하는 경관을 선호하는 데서도 보인다.

풍수적 사고는 둘째로 서원에서 바라보는 전면 경관을 중시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원과 같은 주거 입지에서 전망 경관이 생기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전망 경관은 마주보는 책상처럼 일상에서 항상 접하는 경관으로 풍수에서는 ‘안대案對’라고 한다. 한국의 서원은 대체로 뒷산(배산背山; 주산主山)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에 입지하고, 안대 경관으로는 시내와 그리 높지 않고 편안한 산(안산案山)을 둔다. 서원의 안대 경관은 대체로 들뜬이 중심이 되는 야경野景이 많지만, 영남지방에는 강을 보는 강경江景, 작은 시내가 있는 계경溪景, 그리고 산을 바라보는 산경山景도 많다. 한국서원이 대체로 경사지에 입지하여 뒤쪽이 높게[前低後高] 건물을 배치하고 담장을 낮게 하는 이유는 서원 안에서 바깥의 좋은 자연 풍광을 전망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전망하기 좋은 개방적 경관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 많은 서원이 전면 경관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에 누각 모양 문루門樓를 세워 선비들이 경치를 즐기며 노니는 유식遊息 장소로 활용했다.

**유식遊息의 의미** |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는 것은 서원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래 『예기禮記』의 대학 교육에 관한 기술의 끝 부분 “군자가 학문을 할 적에는 학업을 마음속에 늘 품고 수시로 익히며, 학문하는 가운데 쉬고 노닌다.”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한다(『예기』 권17: 「학기學記 18」).

서원은 “학문하는 가운데 쉬고 노니는 것[息焉, 遊焉]”을 “학업을 배우고 익히는 것[藏焉, 修焉]”과 같은 비중으로 강조한다. 여기서 ‘노닌다[遊]’는 의미는 학업과정에서 틈틈이 끼어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유학자가 말하는 ‘유遊’는 배우고 즐거움이 동행하는 노닐이다. 그것은 자연경치이다. 맹자는 군자가 머무는 곳은 신비스러워져 위와 아래가 대자연과 함께 흘러가서



천지자연과 하나[天人合一]되는 즐거움을 말했다. 자연경치와 마음을 통하는 것이 곧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믿었기에, 도덕적 인간인 군자에게 자연경치를 즐기는 것은 곧 배움이고 수양이 되는 것이다. 많은 한국 서원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경관은 대자연과 일체가 되는 즐거움을 주는 경관이다. 공자와 안자가 즐거워하고, 증점曾點이 스승 공자로부터 찬탄을 받았던 천인합일의 경지이다. 천인합일의 경지는 유교의 최고 가치 인仁을 체험하는 마음과 영혼의 도덕적 세계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경치는 서원이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仁** | 공자는 “인이란 자기[私慾]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라 하였다.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인仁’은 송대 이후 성리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다. 정자程子是 “인이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 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을 말했고, 주희는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인데 사람이 이를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라 하였다. 천인합일은 ‘마음[心]에서의 합일’이란 점을 밝힌 것이다. 주희의 학문과 삶을 따르고자 하는 조선의 유학자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마음[生意]을 얻기에 좋은 아름다운 산수경치를 학문하며 노니는 곳으로 구했다. 정자와 서원이 그것이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서원의 전망 경관을 통해서 지각되는 천인합일의 마음과 경지를 서원 문루와 장소의 명칭, 기문記文, 시문詩文으로 나타냈다. 여기에는 유교 경전과 선현의 글에 보이는 다양한 천인합일의 경지가 그려져 있다. 즉,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天地生物之心], 사심 없이 공정한 마음[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상의 몇몇한 즐거움[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구속되는 바가 없어 시원하며 비온 뒤 반짝이는 바람결과 맑은 달과 같은 마음[胸中洒落 如光風霽月], 가을 달이 찬물에 비치듯이 공경스런 군자의 마음[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천리의 유행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질서[鳶飛戾天 魚躍于淵],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덕행을 따르는 마음[高山仰止 景行行止] 등이다.



병산서원의 전저후고 지형과 전당후묘 배치

인의 실천으로서 예禮 | 유교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는 인仁이며, 그 사회적 실천 규범은 예禮이다. 예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인을 실천하는 엄숙정제한 절도의 아름다움이다. 이 절도의 아름다움은 차별화[等差]와 차례[序]로 나타나는데, 실제 적용에서 여유와 해학까지도 포함하는 조화로운 질서로 구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서원의 예 경관은 위계적 질서가 자연 질서처럼 느껴지도록 서원 내부 공간을 분절하여 차별화한다. 서원 공간은 기본적으로 유식遊息(문루), 강학講學(강당), 제향祭享(사묘) 공간이 전후 상하의 위계로 나누어진다. 한국 서원의 전당후묘前堂後廟의 위계질서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 지형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었다. 또한 서원 예 공간의 전형적 배치는 입구에서부터 지형 경사를 따라 형성된 진입로의 상승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난다. 서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차례차례 올라가는 상승감을 느끼면서, 건물들의 배치가 내포한 사회적 등차와 순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지각하고 예로 받아들인다.



멀리 보이는 소백산 줄기가 내려와 소수서원의 주산이 된 영귀봉靈龜峰이 쭈그리고 앉아 죽계수를 바라보는 형국이다. 풍수 용어를 빌리자면 신령스런 거북이 죽계로 들어가는 '영귀입수형靈龜入水形'이 된다.

## 2.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옥산서원

### 2.1 소수서원

**입지 경관** | 소수서원의 처음 이름은 백운동서원이다. ‘백운동白雲洞’이란 이름은 흰 구름이 죽계 골짜기에 항상 가득한 모습에서 취한 것이다.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 안향安珦(1243-1306)의 독서 장소 숙수사宿水寺 터에 그의 사당을 세우고 그 앞에 선비들이 공부하는 서원을 세운데서 시작되었다.

곽진郭晉은 「백운동부白雲洞賦」에서 이러한 소수서원의 입지 경관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뒤로는 멀리 소백산이 있고, 앞에는 학가산鶴駕山이 있다.”하였다. 먼 배경을 이루는 조산祖山에 해당하는 소백산은 멀리 보이지만, 학가산은 실제로 보이는 양이니 상징적 의미라 하겠다. 소수서원은 낮은 구룡성산지 영귀봉을 주산으로 하고, 전면의 안대案對 경관은 죽계竹溪 건너편 연화봉蓮花峰 기슭의 취한대翠寒臺가 된다. 그리고 소수서원은 순흥 읍치에서 멀지 않다.

조선의 최초 서원 소수서원의 공간 구성은 한국서원의 전형적 양식과 매우 다르다. 후대 서원의 건축물은 대체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축선軸線에 따라, 사당-강당-동·서재-문루(혹은 대문)이 위계적으로 배열된 정연한 구조를 보인다. 소수서원 역시 구룡성 산지와 계류가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나, 건축물들은 배산임수背山臨水에 따르는 좌향坐向과 위계적 배열을 취하지 않았다. 정문을 비롯하여 사당과 동·서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남향으로 죽계와 평행하여 배산임수를 따르지 않았다. 강당과 문루에 해당하는 경림정景濂亭은 죽계를 바라보고 동향하였다. 사당과 동·서재가 남향한 것은 까닭은 주산의 방향에 순응하고 남쪽으로 조성된 서원의 출입로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림정과 강당이 동향한 것은 배산임수하여 죽계

와 그 건너편 취한대翠寒臺의 숲을 전망하는 안대案對 경관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산줄기 방향의 지세향地勢向과 물을 바라보는 임수향臨水向이 상이한 소수서원의 이원적 구조는 후대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초기 서원의 특성으로 해석된다.

**경림정景瀛亭과 경석敬石** | 소수서원 입구의 경림정은 입지나 기능으로 볼 때 소수서원의 문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자에 오르면, 작지만 넓게 흐르는 죽계 물과 그 너머 취한대와 산의 푸른 생기가 모두 합쳐서 보는 이의 눈을 가득 채운다.

경림정에는 많은 시판詩板이 걸려 있다. 대부분이 주세붕과 이황의 시를 차운한 시이다. 아래 주세붕의 시는 경림정에서 은거하는 이의 공경한 마음이 산 빛깔, 물소리와 감통感通하여 마음을 함양하는데 도움 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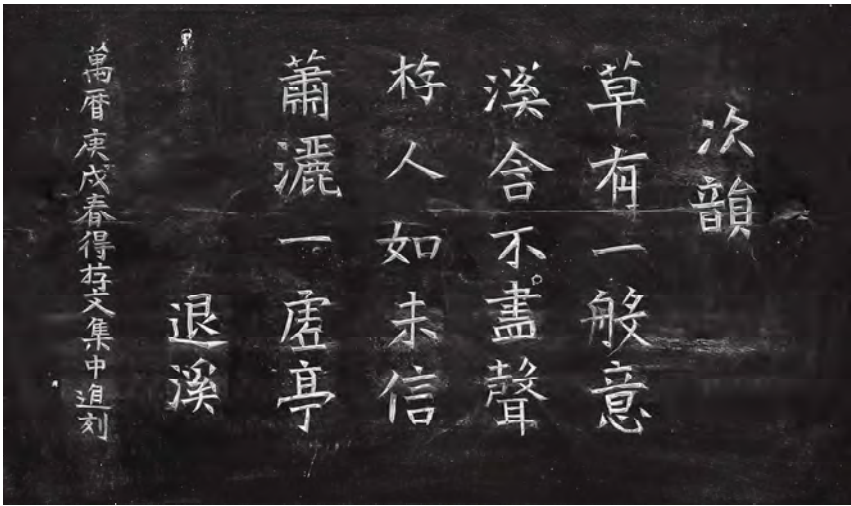
#### 주세붕의 경림정景瀛亭 시

山立祇祇色	산은 우뚝 서 있는데 공경한 빛깔
溪行甍甍聲	시내는 졸졸 흐르는데 층층의 소리
幽人心有會	은자는 마음으로 얻는 바가 있겠지
夜半倚孤亭	한밤중에 외로이 정자에 기대 있네

아래 이황의 시는 주세붕이 말한 공경에서 나아가 ‘초유일반의草有一般意’ 곧 천지만물의 본성인 생의生意로 심화된다. 이황은 산에서 자라는 풀들도 생의를 가진 것으로 옳고,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그 생의를 함축한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풀빛과 물소리는 본성 함양涵養에서 나아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仁을 지각하는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 이황의 경림정景瀛亭 시

草有一般意	풀도 우리 인간처럼 생의를 가졌으니
溪含不盡聲	흐르는 시내 끝없는 소리를 머금었네



풀들도 인간처럼 생의를 가지고 있다는 '천인합일의 인仁'을 읊은 퇴계 이황의 경림정 시판

遊人如未信	유람객들 내 말 아직 믿지 못하는 듯
蕭洒一虛亭	씻은 듯 상쾌한 텅 빈 정자를 보게나

이황은 나의 마음처럼 저 풀도 생의生意를 가지고 있으니,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도 그 오묘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풀도 생의를 가진다는 얘기는, 엄계濂溪 주돈이周敦頤(1017-1073)가 창 앞의 풀을 뽑지 않아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한데서 유래했다. ‘경림정景濂亭’이란 이름은 주돈이를 사모한다는 뜻이다. 이황은 사람들이 경림정 위에서 송림과 시냇물을 보며, 주돈이처럼 생의를 함축한 자연 경치를 통해서 인仁을 깨닫기 바라는 것이다. 이황은 경림정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관 죽계와 취한대翠寒臺를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한다.[仁者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안대 경관으로 본다. 경림정을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인[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을 지각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장소로 읊는 것이다. 경림정에서 마주 보는 바위에 크게 새겨진 ‘경敬’자가 있고, 그 아래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는 각자가 있다. ‘경’은 주세붕이 새긴 것이고, ‘백운동’은



이황이 새긴 것이다. 『죽계지』에는 안향<sup>安珦</sup>의 사당을 세우면서 죽계 바위에 주세붕이 경<sup>敬</sup> 자를 새기게 된 내력을 아래와 같이 적었다.

문성공<sup>文成公</sup>의 사당 앞 깎아지른 석벽에 ‘경<sup>敬</sup>’자를 새기려고 하니, 서원의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여김만 당할 뿐이라고 경계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공경하면 되지, 어찌 굳이 이것을 돌에 새겨야만 하겠는가.” 하기에, 나도 감히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sup>晦翁</sup>(주희)의 이 말을 찾게 되어 벗들 앞에 보이고서, “선천<sup>先天</sup>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sup>敬</sup>자를 새기는 것만 안 된단 말인가? 일찍이 이르기를, ‘경<sup>敬</sup>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sup>不敬</sup>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우리 회현<sup>晦軒</sup>(안향)이 회옹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sup>廟院</sup>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석각<sup>石刻</sup>이 마멸되지 않아 1천 년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 ‘경석<sup>敬石</sup>’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죽계지<sup>竹溪志</sup>』 권5 : 잡록 「백운동석벽경자<sup>白雲洞石壁敬字</sup>」

경림정에 오르는 사람들은 마주보는 바위에 새겨진 ‘경<sup>敬</sup>’자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악함을 물리치고 인욕<sup>人慾</sup>을 경계함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하늘이 준 본성을 함양하는 공경한 마음이 있다. 더 나아가 취한대 숲이 전하는 생의<sup>生意</sup>를 지각함으로써 자연과 일체화되는 감응, 곧 인<sup>仁</sup>을 지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시냇가에 입지한 소수서원 경림정에서 경<sup>敬</sup>으로써 본성을 함양하고, 마침내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한다는 ‘인<sup>仁</sup>’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면 얻는 바가 크다. 경림정에서 작은 시내 죽계와 송림으로 이루어진 취한대가 보인다. 소수서원의 대표 경치 경림정의 전망 경관은 작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숲을 감상하는 계곡 경치<sup>溪景</sup>에 해당한다.

죽계의 ‘경<sup>敬</sup>’자와 ‘백운동<sup>白雲洞</sup>’ 바위 각자에 대해서는 풍수 비보<sup>裨補</sup>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시냇가 바위를 자연석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면,

이 바위는 바라보기 불편한 괴이한 바위(異石怪巖)로 느껴지고 죽계와 취한대 언덕의 생기를 억누르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바위를 안대(案對)로 삼아 편안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언가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던가 아니면 생기 있는 자연을 연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풍수적으로는 비보압승(裨補壓勝)이라고 부른다. 주세붕이 새긴 붉은 색의 경(敬)자는 바위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이황이 새긴 흰 색의 백운동(白雲洞) 석자는 바위에서 구름 가득한 골짜기의 생기를 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비보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 2.2 도산서원

**입지 경관** |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다. 도산서원의 입지와 주요 경관에 대해서는 이황 스스로 「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并記)」에 자세하게 밝혔다. 이 글에서 이황은 처음에 잡은 도산 북쪽 기슭의 퇴계(시내이름으로 토계라고도 부른다)가 너무 좁아서 산 남쪽에 새로운 터를 얻었다고 하였다. 새로 잡은 도산 남쪽 골짜기에 깊숙하고 아늑하면서도 강과 산들이 잘 보이고 우물의 물맛 또한 달고 차서 참으로 수양에 적당한 곳이라 하였다.

처음에 내가 퇴계 위에 자리를 잡고 시내를 굽어 두어 칸 집을 엮어서 책을 간직하고 웅졸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는데, 벌써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산 남쪽에 땅을 얻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골이 있는데, 앞으로는 강과 들이 내려다보이고 깊숙하고 아늑하면서도 멀리 트였으며, 산기슭과 바위들은 선명하며 돌우물은 물맛이 달고 차서 참으로 수양할 곳으로 적당하였다.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

이황은 또 도산서원의 입지 경관을 풍수적 관점에서 주위 산세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먼저 주산이 되는 도산의 근원에 대하여 영지산靈芝山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陶山이 되었다고 하고, 도산은 그리 크거나 높지 않지만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도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형국을 풍수에서는 꽃봉오리 속에 서원이 자리 잡은 모양으로 보아 ‘화심형花心形’으로 부른다. 또 이황은 도산서원의 입지 경관을 동서의 산이 마주보며 내려가다가 멀리서 합세하고 그 사이로 낙동강이 흘러 큰 들판을 이루는 산수의 조화 혹은 환포環抱로 설명한다.

왼쪽에 있는 산을 동취병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서취병西翠屏이라 한다. 동취병은 청량산淸凉山에서 나와 이 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 선 품이 아련히 트였고, 서취병은 영지산에서 나와 이 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동취병과 서취병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구불구불 휘감아 8, 9리쯤 내려가다가, 동쪽에서 온 것은 서쪽으로 들고 서쪽에서 온 것은 동쪽으로 들어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





아득한 밖에서 합세하였다. 산 뒤에 있는 물을 퇴계라 하고, 산 남쪽에 있는 것을 낙천洛川이라 한다. 퇴계는 산 북쪽을 돌아 산 동쪽에서 낙천으로 들고, 낙천은 동취병에서 나와 서쪽으로 산기슭 아래에 이르러 넓어지고 깊어진다. 여기서 몇 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물이 깊어 배가 다닐 만 한데, 금 같은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디차다. 여기가 이른바 탁영담濯纓潭이다. 서쪽으로 서취병의 버랑을 지나서 그 아래의 물까지 합하고, 남쪽으로 큰 들을 지나 부용봉芙蓉峰 밑으로 들어 가는데, 부용봉은 바로 서취병이 동취병으로 와서 합세한 곳이다.

도산서당陶山書堂 | 도산서원 경내 건물은 이황 당대에 설립한 서당 건물과 나중에 서원이 되면서 건립한 서원 건물로 구분되는 이원적二元的 구조이다. 이황이 만년에 거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수양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건립한 것은 도산서당과 농운정시隴雲精舍, 역락재亦樂齋이고, 서원 건물은 제자들이 이황 사후 그의 덕을 추모하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서원 건물이 전저후고前底後高의 지형을 활용하여 내부 공간을 상하의

예禮에 적합하도록 위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면, 서당 건물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자연에 개방적인 경관을 보여준다.

도산서당은 부엌·방·대청 등 3칸 규모의 작은 건물이지만, 멀리 낙동강과 건너편 산들을 전망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도산서당 동편에 연을 심은 못 정우당淨友堂을 만들고, 또 그 옆에 우물 몽천蒙泉을 만들었다. 몽천 위의 산기슭을 평평하게 하여 단을 만들어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고, 이황 자신을 포함하여 절개를 지키는 모임을 뜻하는 절우사節友社라고 불렀다. 아래 「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并記」에서 독서에 몰두하다가 주위 자연과 벗하여 노니는 이황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나는 늘 고질병을 달고 다녀 괴로웠기 때문에, 비록 산에서 살더라도 마음껏 책을 읽지 못한다. 남몰래 걱정하다가 조식調息한 뒤 때로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상쾌하여, 우주를 굽어보고 우리러보다 감개感慨가 생기면, 책을 덮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 관란헌(도산서당의 대청마루)에 임해 정우당을 구경하기도 하고 단에 올라 절우사를 찾기도 하며,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기도 한다. 혹은 바위에 앉아 샘물 구경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거나 뉘시터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가까이하면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노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도산서원 현판과 기호 경관** | 이황 사후 건립된 도산서원 공간은 경사진 지형을 활용하여 정문 진도문進道門, 동재 박약재博約齋와 서재 홍의재弘毅齋, 강당 전교당典敎堂, 사당 상덕사尙德祠가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도進道는 『근사록近思錄』에 “사람은 마음이 굳세어야 뜻을 지켜 용감하게 도에 나아갈 수 있다.”에서 온 말이다. 도道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의 길이며, 앞서 간 스승의 학덕을 부지런히 좇아 나아감으로써 도의 성취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원 강당 전교당의 ‘전교典敎’는 교육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니, 전교당은 교육하는 집이다. 전교당은 강당이므로 마루로 되어



도산서원 농운정사. 이황의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기숙사로,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며 한자의 '공(工)'자 모양을 띄고 있다.

있는데, 스승이 거처하는 방(협실)은 서쪽에만 있다. 동쪽은 사당을 올려보는 쪽으로 마루로 비워두었다.

서쪽 협실의 이름은 한존재(閑存齋)이다. ‘한존(閑存)’은 『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의 “간사함을 물리치고 그 성실함[誠]을 보존하여 선한 일을 하지만 자랑하지 아니하며 은덕을 널리 베풀어 사람들을 감화시킨다.”에서 온 말이다. 이황은 학문방법에서 경(敬)을 강조했는데, ‘한존재’는 사악함을 막아 참된 마음을 보존하는 경(敬)을 공부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재(洞齋) 현판 ‘박약(博約)’은 『논어』 「자한(子罕)」편에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顏淵喟然歎曰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한데서 인용하였다. 서재(西齋) 현판 ‘홍의(弘毅)’는 『논어』 「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曾子曰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에서 인용하였다. 동재(洞齋) 박약(博約)은 학문의 내용을 뜻하고 서재(西齋)



홍의재는 학문의 자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존재·박약재·홍의재 현판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스승은 경  
敬을 가르침의 원칙으로 삼고, 학생들은 지식을 넓히고 행동을 예에 맞도록  
[博文約禮]하는 내용의 공부를 하고, ‘도량이 넓고 굳센 뜻[弘毅]’을 가지고  
평생토록 노력하는 자세로 공부에 임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당호 현판이라는 기호에 함축한 것이다. 도산서원 사당은 ‘상덕사尙德  
祠’이다. 『논어』 「헌문憲問」편의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도  
다, 이 같은 사람이여! [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에서 인용한 것이다. 위  
대한 스승 이황의 학덕을 평소 우러르며 제사한다는 뜻이다.

도산서원 내부를 서원공간과 서당공간으로 나누면, 지금의 서원공간 안에서  
는 멀리 내다보는 전망 경치가 없다. 서당 공간에서는 이황이 「도산잡영병  
기」에서 쓴 것처럼, 멀리 강과 건너편 산까지 바라보이는 전망 경관이 있었  
다. 그러나 1970년대 안동댐 건설과 이른바 도산서원 성역화사업으로 경관  
이 크게 바뀌었다. 안동댐은 도산서원 앞 자연스러운 강 모습을 수몰시켜 거  
대한 호수모양으로 바꾸었다. 진입로 변경으로 낙동강에서 걸어서 곡구암으  
로 오르는 비탈길이 없어지고 산기슭을 따라 자동차 길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서원 앞 곡구암 골짜기는 흙으로 메워져 평탄지가 되었다. 진입로  
가 바뀌지기 전, 이황 선생의 모습을 그리며 강에서 비탈길로 오르는 상승감  
이 외경과 기대를 부풀게 했던 도산서원의 매력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이황은 도산서당을 짓고 서당 주위는 물론 일대의 경치를 즐기며 각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칠언시 18개, 오언시 26개를 지어 이들 장소의 경관과 즐거움  
을 자세하게 그려냈다. 시와 기문을 통해서 이황은 산수 자연을 즐기는 것이  
그가 간절히 원하는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일과 한가지였음을 밝힌  
것이다. 아래 「도산잡영병기」는 지금은 변해버린 이황 당시 도산서당의 전망  
경치와 전망 장소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 앞 출입하는 곳을 막아서 사립문을 만들고 이름을 유정문幽貞門이라  
하였는데, 문밖의 오솔길은 시내를 따라 내려가 동구에 이르면 양쪽 산  
기슭이 마주하고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부수고 터를 닦으니

조그만 정자를 지을 만한데, 힘이 모자라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보존해 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아 이름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바로 탁영담에 이르는 데, 그 위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들었더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물이어서 새는 날고 고기는 뛰며 물에 비친 좌우 취병산의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하였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않다.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넓적하여 배를 매 두고 술잔을 돌릴 만하며, 큰 홍수를 만날 때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아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특히 마치 산문山門처럼 도산서당의 입구가 되는 곡구암의 동쪽에 정자를 짓고자 했으나 힘이 모자라 만들지 못하고 자리만 보존해 두었다고 한 구절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곡구암은 서원의 전망을 즐기기 위한 문루 자리였던 것이다. 곡구암 자리에 정자를 짓지 않은 이유가 재정적 문제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곡구암의 좌우에 이황 스스로 찬탄해 마지않은 천연대天淵臺와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라는 자연적 전망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황은 「도산십이곡」에서 “봄바람에 꽃 온 산 가득하고, 가을밤에는 달이 대臺에 가득하니, 사계절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물며 연비어약鳶飛魚躍 천광운영天光雲影이야 끝이 있으랴.” 하였다. 천연대와 천광운영대에서 낙동강 물을 바라보며 천지자연과 일체가 되는 즐거움을 말한 것이다. 천연대의 천연天淵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술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다.[鳶飛戾天 魚躍于淵]”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천연대에 서서 강물 위로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 “위아래에서 활발히 유행流行하는 천지의 조화造化 곧 천리天理를 살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황은 그가 평생 추구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人慾을 막는 공부의 효험을 천연대에 올라 확인하는 즐거움에 대하여, “천연대에서 자연의 활발한 운동을 보고 오묘한



장중하고 수목이 울창해서 생기 충만한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향한 옥산서원

하늘 뜻을 깨달았으며 하루 종일 마음의 눈을 열었다.”고 술회했다.

도산서원의 전망 장소 천연대와 천광운영대는 천지의 조화와 생명의 발육으로 나타나는 천리의 작용을 살피고, 이 천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공경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채워진 장소이다.

## 2.3 옥산서원

**입지와 전망 경관**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서원은 1572년(선조 5)에 경주 부윤 이제민李濟閔이 지역 유림儒林과 의논하여 세운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 제향 서원이다. 옥산서원 자리는 이언적이 은거하여 학문을 연마하던 독락당獨樂堂 아래 자계紫溪 동편 기슭이다. 1573년(선조 6) 경주 서악西岳 향현사鄉賢祠에서 위판位版을 옮겨와 서원에 모셨다. 같은 해 12월에 국왕으로부터 ‘옥산서원玉山書院’으로 사액서원이 되었다. 옥산서원이 초기의 서원임에도 가장 전형적이고 정연한 공간구조를 갖춘 것은 서원건립이 관주도로 체계적이었기 때문이다.

옥산서원은 서향인데, 동·서·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이 트여 있다. 도덕산道德山에서 발원한 작은 시내 자계는 남쪽으로 흘러 독락당을 지나 옥산서원 앞을 지난다. 옥산서원은 자계 계곡 동편에서 서향으로 입지하여 도덕산 줄기에서 뻗어 내린 자옥산紫玉山을 바라본다. 옥산서원이 서향한 이유는 골짜기를 동쪽으로 치우쳐 흐르는 자계를 가까이 하면서 산을 등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얻기 위함이다. 멀리 있는 자옥산보다 가까운 자계가 더 의미 있는 안대경관으로 지각되었음을 허엽許曄의 아래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에서 알 수 있다.

경주 안강현의 양좌동은 선생이 살던 곳이었다. 양좌동의 서쪽 15리에 자옥산이 있는데 선생은 별장을 세워서 유식遊息 장수藏修하는 곳으로 삼았다. 탁영대濯纓臺 징심대澄心臺 관어대觀魚臺 세심대洗心臺 등은 모두 선생이 이름 지은 것이며, 일찍이 소요하며 스스로 즐긴 곳이었다. 지금의

서원은 꼭 세심대 위에 해당되니 위 아래의 용추龍湫는 물이 맑아서 애호할 만하다.

옥산서원의 주산은 화개산華蓋山인데 안산이 되는 자옥산처럼 수목이 울창한 토산土山이다. 자옥산은 562m의 높은 산이지만 약 2km 가량 떨어져 있어 병산서원의 병산과 달리 위압감이 없다. 그 대신 토산의 장중함과 수목의 울창함이 풍요한 생기를 느끼도록 하여 인仁에 대한 지각을 돕는다. 자옥산은 비봉형국飛鳳形局의 산으로 봉황은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봉황이 머물거나 알을 품은 자리가 명당이 된다. 옥산서원 뒤에서 자옥산을 보면 옥산서원 마당을 봉황의 둥지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봉소형蜂巢形’이라고 하는데, 풍수에서는 봉소 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옥산서원 강당 앞마당이 봉황의 둥지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한다. 자옥산의 생기가 옥산서원 마당에 응집되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옥산서원 앞의 자계는 작은 시내에 불과하지만 수목이 울창하다. 서원은 경사가 완만한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에 지어져, 높이 차이가 적은 곳에 건물들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서원 내부는 폐쇄적이고 안산 자옥산은 전경이 보이지 않고 토산의 두터운 산세만 느껴진다. 문루 무변루無邊樓에 올라야 비로소 자옥산이 크게 보인다. 무변루는 강당 쪽으로 개방되어 서원 내부 지향적이다. 무변루의 직접적 생기生氣는 멀리 있는 자옥산보다 가까이 흐르는 자계와 그 일대의 숲에서 전해진다. 자계 건너편 숲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울창해서, 암반 위에서 폭포를 이루며 흐르는 자계 시냇물과 어울려 깊은 생기를 느끼게 한다.

옥산서원의 실질적 안대 경관은 자계 계곡의 숲이라 할 수 있다. 이언적 자신도 「옥산십사영玉山十四詠」과 「옥산십육영玉山十六詠」을 지어 자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산서원의 안대경관의 유형은 자옥산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자계가 주된 전망 경관이 되는 계경溪景으로 볼 수 있다.

**무변루의 경지境地** | 옥산서원의 문루인 무변루無邊樓의 처음 이름은 납청루納淸樓였다. 납청루의 의미는 옥산서원 창건 때 허엽이 지은 「옥산서원기」에 나온다. 허엽은 「옥산서원기」에서, “납청루는 양기陽氣 함양과 도의 응축을 모두 갖추었다.”라 하여 ‘납청루’가 서원 앞에 풍만하게 펼쳐진 자연의 양기 곧 생기를 받아 들여 도를 응축한다는 생기체득生氣體得의 장소임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나중에 노수신이 문루 이름을 무변루로 이름을 바꾸고, 옥산서원 당호의 의미를 풀이하는 「서원당액찬書院堂額贊」을 지었다. 이글에서 노수신은 함축적으로 무변루의 생의生意를 말하면서 옥산서원의 제향인물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을 암시한다. 무변루의 ‘무변無邊’은 북송시대의 시인 황정건黃庭堅이 주돈이의 인품을 찬양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돈이의 인품을 ‘풍월무변風月無邊’으로 부른 것은 주돈이가 광풍제월光風霽月 같이 넓고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무궁무진한 흥취를 뜻한다. 이언적의 제자인 노수신이 무변루의 의미를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한 것은 주돈이의 ‘무극無極’을 말한 것이다. 또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한 것은 주돈이의 인품을 말한 것이다.

결국 무변루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노수신은 생기 충만한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곧 천인합일의 인仁을 지각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나아가 주돈이의 광풍제월光風霽月의 경지를 옥산서원이 모신 이언적에 비유하는 은유隱喻를 함축하였다.

**옥산서원 당호와 경관체계** | 무변루에 함축된 인仁은 옥산서원의 대문 역락문亦樂門, 강당 구인당求仁堂, 사당 체인묘體仁廟 등의 당호 현판에서 인의 완성 과정을 상징하는 기호경관으로 제시되었다. 노수신은 「옥산서원제액찬玉山書院題額贊」에서 무변루의 의미가 함축하는 인의 경지가 옥산서원의 외삼문에서부터 사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각 당호의 뜻을 풀이했다. 곧, 천하 영재들이 학문을 배우려 들어오는 외삼문 역락문, 영재들이 선품을 택하여 이치를 밝히고 자신을 돌이켜 참되게 하는 방식으로 수학하는 양진재兩進齋, 경敬으로 안을 곧게 하며 의義로서 밖을 방정하게 수행하는 해립재偕立齋, 마음을 방일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인을 추구하는 강당 구인당, 그



리하여 마침내 성숙된 인을 체득한 현자를 사당 체인묘(體仁廟)에서 알현하는 과정이다. 성취된 인仁은 무변루에서 광풍제월처럼 빛나고 태허에서 노니는 천인합일 정신 경지로 나타난다고 해설하였다. 노수신이 「옥산서원제액찬」에서 옥산서원 여러 당호에 부여한 인의 성취 과정은 외삼문에서 사당에 이르는 정연하고도 위계적인 건물의 배치로 구현되어 있음을 서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역락문에서 구인당 체인묘이 이르는 시선이 하나의 축선으로 관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산서원이 입지한 자계 계곡 암반에는 이연적이 독락당(獨樂堂)에 은거하면서 이름을 붙인 5개의 대臺가 있다. 5개의 대는 관어대(觀魚臺)·영귀대(詠歸臺)·탁영대(濯纓臺)·징심대(澄心臺)·세심대(洗心臺)이다. 이들 5개 대는 나중에 이연적의 후손에 의하여 ‘옥산구곡(玉山九曲)’으로 발전하여 유교적 유상(遊賞)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정문 역락문에서 사당 체인묘까지 시선이 관통되는 옥산서원 축선



### 3. 도동서원과 병산서원

#### 3.1 도동서원

입지 경관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을 제향하는 서원은 1568년(선조 1)에 현풍현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정유재란으로 쌍계서원이 불탄 후, 1604년(선조 37) 현풍현 서쪽 오설면烏舌面 대니산戴尼山 김굉필의 묘소 아래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보로동서원甫老洞書院라는 이름으로 중건되었다. 보로동서원은 1607년(선조 40)에 도동서원道東書院이란 이름으로 다시 사액되었다.

서원의 중건은 김굉필의 외증손外曾孫인 한강寒岡 정구鄭逵(1543-1620)가 주도했다. 정구는 아래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선생을 봉안하는 글」에서, 대니산戴尼山을 주산으로 하여 낙동강을 안대案對 경관으로 전망하며, 보다 조용한 환경, 그리고 선생의 연고지와 가까운 점을 서원 이설 이유로 밝혔다.

戴尼崇崇 清洛沄沄

대니산 높디높고 낙동강은 넘실넘실

中有精廬 廟貌攸尊

그 가운데 서원 사당모습 엄숙하네

昔日雙溪 城市湫喧

전의 쌍계터는 시끄러운 저자거리

茲焉移卜 密邇丘園

여기 옮긴 자리는 은거지와 가깝다네

대니산이 현풍 읍치 서쪽에서 서북방향으로 뻗고 그 밖을 흐르는 낙동강은 대니산 끝자락을 돌아 남동방향으로 흐른다. 대니산과 낙동강이 어울려 북서향으로 돌출한 반도 모양을 이루었다.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 ‘오설면烏舌面’은 까마귀 혀를 뜻하는데, 이곳의 지형을 형상한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은 까마귀 혀 모양의 끝 부분에 입지한 것이다.

도동서원은 반도 모양의 대니산 기슭에서 북향하여 낙동강과 건너편 산들을



'차가운 강을 비추는 가을 달[秋月照寒水]'을 상기시키는 도동서원의 입지 경관

바라본다. 북향으로 앉은 서원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서원 바로 앞 강물 속에 개구리 모양의 작은 섬이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서원 동쪽 대니산 산줄기가 물가로 내려와 잘린 것처럼 가까운 섬이다. 현지 사람들은 물가로 내리뻗은 이 산줄기를 다람쥐 모양으로 생각해 ‘다람재’라 부르고, 잘린 듯 떨어져 물속에 고립된 작은 산을 ‘개구리 산’으로 부른다. 서원에서 좀더 시야를 넓혀 전망하면, 도동서원 정면의 ‘개구리 산’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서 산줄기가 모여 드는 모습이다. 도동서원의 가까운 안대案對는 이 ‘개구리 산’이며, 보다면 안대 경관은 낙동강과 개구리 산을 향해 일제히 달려드는 듯 느껴지는 강 건너편의 산들이다. 개구리 산이 중심이 된 형국은 풍수적으로 뱀들이 개구리를 노리고 쫓는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 혹은 용 모양의 주위 산들이 구슬 모양의 개구리 산을 얻고자 달려드는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도동서원의 풍수에 대한 설명 가운데는 뒷산 대니산 끝자락과 낙동강이 만나는 국면을 강으로 내려오는 거북[龜] 혹은 자라[鼈]로 상상하는 방법이 있다. 거북이나 자라는 물을 좋아하여 물을 만나면 물에 들어가고자 한다. 머리를 물이 있는 강 쪽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금구입수金龜入水형 혹은 영구하산靈龜下山형이라고 부른다. 신령스런 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모습,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다. 서원이 등을 대고 있는 산의 뾰족한 모습을 자라목으로 상상해서 오항혈鰲項穴 형국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 거북·자라 형국 풍수는 강가의 산기슭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흔한 형국이지만 도동서원에 조각되어 있는 거북 머리나 용머리를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있다. 쫓는 뱀과 쫓기는 개구리의 모양이나 용들이 구슬을 삼키려는 모양은 모두 극도의 긴장과 생기를 느끼게 하고, 거북과 자라가 물로 들어가는 모습도 생기가 충만한 형국이다. 도동서원 이설을 주도한 정구는 김평필의 묘소와 은거지 인근으로 입지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장소와 좌향의 결정은 풍수적 관점에서 서원이 입지한 산과 강의 조화와 생기를 깊이 배려했을 것이다.

**전망과 예禮 경관** | 도동서원의 전망 경관 이미지는 ‘차가운 강을 비추는 달 [寒水照月]’이다. 이는 주희의 시 “삼가 천 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에 맥락이 닿는다. 낙동강을

높다란 산기슭에서 내려다보는 도동서원 전망 경관은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것처럼, 공정무사한 도학자道學者의 공경스런 정신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도동서원 입지와 경관은 김굉필 자신이 선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굉필은 생시에 ‘차가운 강을 비추는 달[寒水照月]’을 이미지로 하는 시문이 여럿 남겼다. 결국 ‘차가운 강을 비추는 밝은 달’로 상징되는 김굉필의 정신 세계는 그의 외증손 정구에 의하여 도동서원 전망경관으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북향하여 큰 강과 못 산을 바라보는 강경江景 도동서원은 강이 주는 ‘한수조월寒水照月’의 이미지와 생기 가득한 안대경관을 통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공경한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곳이다.

도동서원의 전망 경치를 보기 위해 건립한 누각이 문루 수월루水月樓이다. 도동서원은 경사가 급한 산기슭에 지어졌으므로 굳이 2층 누각이 없어도 전망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수월루의 지붕이 강당에서 보이는 경치를 막아서 갑갑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수월루의 ‘수월水月’은 도동서원의 전망경관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는 일종의 텍스트이다. 도동서원 전망 경치의 의미는 ‘수월水月’에 대한 해석으로 풀어볼 수 있다. 1849년(헌종 15) 수월루 창건 때 이원조李源祚가 지은 수월루 상량문上樑文에는, 도동서원의 강의 서원 앞 차가운 강물에 비치는 달처럼 밝게 빛나고, 안개 낀 달밤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닐며 「무이도가武夷悼歌」를 부를 수 있으니, 선비들의 마음은 밝은 달과도 신령스럽게 통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서원 건축** | 도동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 공간구성을 가장 우수하게 표현한 서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 중에서 도동서원이 가장 급경사지에 입지하였다. 이 경사진 지형이 자연스럽게 위계적으로 분절된 서원 공간을 만든 것이다. 수월루로 대표되는 유식공간, 강당과 동서재로 구성된 강학공간, 사당이 자리한 제향공간이 전저후고의 지형 위에 18개의 석단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터를 잡았다. 서원건물들은 전제를 관통하는 돌계단이 만든 일관된 상승적 축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었다. 결국 도동서원의 건축공간은 예 공간이 추구하는 등차와 순서를 지형의 고저를 활용하여 절도 있게 위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도동서원의 진입로는 수월루 아래에서부터 급경사의 좁은 돌계단으로 시작된다. 도동서원에서는 오직 한사람만이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곧은길이 사당까지 이어진다. 도동서원을 오르는 첫 번째 관문은 환주문喚主門이다.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는 의미의 환주문은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있는 외삼문이 아니다. 강당 담 사이 공간을 틈 좁고 낮은 사모지붕 문이다. 갓 쓴 선비가 고개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문이 낮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게 지어진 작은 문이다. 문지방 자리에 꽃봉오리 문양의 돌부리가 있어 더욱 방심을 허용하지 않고, 예를 갖추도록 한다. 좁은 환주문을 통해 바깥에서 보는 서원은 도동서원 현판과 강당 중정당 현판만이 나타난다.

서원 안마당(중정中庭)은 좌우의 동·서재와 정면의 강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의 비석도 한그루의 수목도 없이 텅 비어 있다. 빈 마당 가운데로 역시 한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돌길이 강당 중정당 가운데를 향해 곧게 나 있다. 강당 중정당中正堂은 우리러보도록 세 겹의 기단으로 높게 조성하였다. 한길 높이의 가운데 기단 면석은 천년 성곽을 짓듯이 잘 다듬어진 돌로 서로 물리도록 쌓았다. 중정당은 정면 5간의 큰 건물이지만 간결한 맞배지붕을

소학동자 김굉필의 올곧은 지조를 엄숙정제한 좌우대청의 예 경관으로 재현한 도동서원 강학공간



하고 있다. 강당 뿐 아니라 도동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모든 건물들이 맞배지붕이다. 맞배지붕은 그 간결함으로 엄숙정제嚴肅整齊의 예를 경관에 나타낸 것이다. 단청도 없고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강당 정면 여섯 개 민흘림 기둥에는 흰 한지를 둘러 동방오현 가운데 수현首賢인 김굉필 선생을 모신 서원임을 나타냈다. 사당을 오르는 돌계단도 내삼문까지 급경사 외길로 일관되었다. 한강 정구는 도동서원 사당에 김굉필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심성 곧고 근실하며 이치 밝고 의리 정밀, 대니산 바라볼 제 선생 정기 서리었네. …… 이제 새롭게 세우니 사당 기상 엄숙하다. 길이 평안하시길 삼가 축원합니다.” 하고 도동서원의 예 경관을 기렸다.

가파른 언덕에 작은 외길을 고집한 도동서원 돌계단 진입로는 중심 축선이 되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맞배지붕 건물과 함께 엄숙정제한 도동서원 예 경관을 실현한 것이다. 마치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로 칭하며 일상에서 엄격히 윤리를 실천한 김굉필의 올곧은 지조를 도동서원의 경관이 재현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환주문의 꽃봉오리 문턱 돌과 절병통을 얹은 사모지붕, 중정당 지대석 중앙의 거북 모양의 돌, 면석 기단의 용머리와 세호細虎, 사당 내삼문 계단석에 조각된 석물, 축문을 태우는 사당 담장의 감坎,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서원담장 등은 다른 서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도동서원 고유의 미학 디테일이다. 도동서원 건축 경관은 예가 엄숙정제한 절도만으로 충분할 수 없고, 조화와 해학을 더하여 문채文彩있는 디테일의 아름다움을 포함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점을 웅변한다.

**당호와 현판** | 도동서원 이건을 주도한 정구는 김굉필이 이룩한 도덕을 기리는 장소로 도동서원을 세웠음을 밝혔다. 「도동서원춘추향사문」에서 정구는 “공께서는 경敬과 의義를 동시에 지키고明明과 성誠을 함께 닦으시되 정력을 오래 쌓으시어 덕德이 서고 도道를 이루셨습니다. 끊어진 학통을 잇고 선양하여 유학의 종장宗匠이 되셨으니 이곳은 공의 묘소와 인접하여 의표儀表를 뵈는 것처럼 황홀합니다.”라 하였다.

도동서원의 상징성은 도동서원 현판에 기호경관으로 나타난다. 도동道東이란

사액 이름은 김굉필이 동방에서 유학의 적통을 이었음을 함축한다. 강당 중정당中正堂의 ‘중정中正’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중中·정正·인仁·의義로서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에서 나왔다. 중·정·인·의 가운데 강당 현판에서 중과 정을 표상하고, 동·서재는 거인재居仁齋와 거의재居義齋라 하여 인과 의를 드러냈다. 거인居仁과 거의居義는 『맹자』에서 “인仁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義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 인과 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경敬을 주로 함으로써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중中이다.”라 하였으니 강당 중정당이 중中과 정正을, 동재가 인仁, 서재가 의義를 상징하고, 환주문은 마음의 정靜과 경敬을 함축한다. 도동서원의 교학정신은 경을 바탕으로 중·정·인·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동서원의 체계적 교학정신은 당호 현판을 통해 김굉필이 성취한 도덕적 정신세계가 당대의 선비는 물론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전해지기를 염원한 것이다.

### 3.2 병산서원

**입지 경관**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을 제향하는 병산서원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가장 궁벽진 곳에 입지한 서원이다. 이처럼 인가人家로부터 격리된 지리적 위치 덕분에 병산서원이 지금까지 산수경치를 가장 잘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류성룡이 1572년(선조 5)에 병산서원의 모체인 풍악서당을 번잡한 풍산읍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하니 역시 선견지명이다.

병산서원은 화산花山을 등지고 남남동 방향으로 낙동강을 내려다본다. 강 건너 병풍모양으로 막아선 병산屏山을 안산案山으로 마주한다. 서원은 전형적인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에 입지하여 전망경관이 매우 개방적이다. 강당과 문루에서 낙동강과 병산 등 자연경관이 막히지 않고 전망된다. 병산서원 전면의 낙동강은 폭이 300m 이상의 큰 강이고, 병산 역시 300m급의 높은 산이다. 서원은 이처럼 큰 강과 높은 산을 불과 500m정도의 근접거리에서 마주한다. 따라서 서원에서 바라보는 산과 강은 매우 압도적 경관이 된다.



낙동강 물줄기가 지는 저녁 햇살에 빛나는 병산서원 입지 경관

**만대루** | 병산서원의 전망 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장소는 만대루晩對樓이다. 만대루는 창호 없이 모두 개방된 7칸 규모의 대형 누각이다. 전면에 흐르는 큰 강과 그 뒤에는 병풍처럼 솟은 높은 산이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전개한다. 만대루가 거대한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7폭 병풍에 넣어 나누어서 보여 주는 덕분에 압도적인 강과 산을 마치 사진틀 속에 든 그림 보듯이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만약 만대루가 없었다면 병산서원 전망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관이 되었을 것이다. 풍수에서는 만대루가 전면 강과 산이 주는 위압감을 완화해주는 비보裨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만대루의 만대는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기 마땅하고’ 하는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에서 따온 것이다. 주희도 무이정사武夷精舍의 경치를 그린 『무이잡영武夷雜詠』의 「만대정晩對亭」 시에서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을 비추네.”라 하였다. 저녁 해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모습에서, 두보와 주희는 산의 생기를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이다.

낙동강은 병산서원 앞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미 서쪽에 기운 해는 높은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빛을 뿌린다. 비스듬하게 비치는 햇살에 낙동강과 병산의 푸름은 비취빛으로 더욱 황홀하게 반짝인다. 이때 빛나는 산과 물의 생기가 보는 이의 눈으로 전해지고 가슴으로 젖어들면서, “천지의 만물을 낳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는 느낌이 된다. 산과 물이 생기가 내 마음 속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안대경관의 산색山色과 사람의 마음이 생의生意라는 하나의 의미로 서로 감통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느낌인 것이다.

**현판의 상징성** | 병산서원 강당의 현판 입교당立教堂의 ‘입교’는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을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병산서원 강당의 동쪽 협실의 현판은 ‘명성재明誠齋’이다. ‘명성’은 『중용中庸』 21장의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짐을 교敎라 하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하게 된다.”에서 왔다. 성誠은 성실히 하는 것으로 행行에 해당하고 밝음明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지知에 해당한다. 성性은 배우지 않고도 천명에 따르는 것으로 성인聖人을 말하고, 교敎는 가르침을 받아서 도道를 따르는 현인賢人을 말한다. 따라서 명성재는 성현聖賢이 되고자 교육하는 장소임을 나타낸다. 서쪽 협실의 현판 경의재敬義齋는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경敬으로써 마음을 수양하고, 의義로써 행동의 판단 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유교는 경敬과 의義를 추구하는 실천 학문임을 밝힌 것이다.

병산서원 동재의 현판은 동직재動直齋이고 서재는 정허재靜虛齋이다. 주돈이의 『통서通書』 제20: 「성학聖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만대루 일곱 폭 병풍에 담은 낙동강과 병산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一爲要 一者無欲也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 한데서 온 것이다. 결국 동 서재의 현판 ‘동직(動直)’과 ‘정허(靜虛)’는 사욕을 버리는 극기(克己) 공부로 인(仁)을 이룬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병산서원 정문은 복례문(復禮門)이다.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인정할 것이다.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 『논어』 「안연(顏淵)」]”에서 따왔다. 결국 정문의 ‘복례(復禮)’는 동·서재의 동직(動直)·정허(靜虛)가 함축하는 내면의 마음공부 즉 극기(克己)와 짝을 이룬다. 예(禮)로서 외면 행동을 제어하여 극기하는 마음을 기르자는 의미이다. 이처럼 병산서원의 당호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인(仁)’을 이루는 수양을 통해서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행하는 교육목표를 현판으로 상징한 것이다.

## 4. 남계서원과 필암서원

### 4.1 남계서원

**입지 경관** | 남계서원濫溪書院은 1552년(명종 7)에 개암介菴 강익姜翼이 함양 군수의 지원을 받아 일두—蠹 정여창鄭汝昌(1450-1504)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창건하고, 1566년(명종 21)에 서원 앞의 시내 이름을 따서 ‘남계濫溪’로 사액 받은 조선의 2번째 사액서원이다.

남계서원은 연화산蓮花山 북북서 방향의 끝 줄기에서 남계 들판을 바라보는 구릉지에 입지한다. 서원은 언덕 경사면에서 서쪽을 보고 섰는데, 앞 들판을 흐르는 남계와 백암산白巖山이 먼 안산案山으로 아련히 전망된다. 서원 앞을 흘러나가 함양읍에서 나오는 위천과 합류하는 남계는 자주 범람하여 함양군 일대에서 가장 큰 평야를 만들었다. ‘남계濫溪’라는 시내 이름 뿐 아니라, ‘연화산蓮花山’, ‘수동면水東面’, ‘원평리院坪里’ 등 서원 주위 지명이 모두 물과 관련된 이름이다. 이런 남계서원의 형국을 풍수에서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한다. 주변에 산이 높지 않고 시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어, 시야視野가 개방되어 편안하며 활발한 느낌이다. 안대案對 경관의 유형은 경사지 언덕 위에서 시내와 들판, 그리고 먼 산을 전망하는 야경野景이 된다. 남계서원의 북쪽 승안산 기슭에는 정여창 선생의 묘소가 있고 남계 건너 북쪽에는 선생의 후손이 사는 개평마을이 있어 제향인물의 연고지에 설립된 서원의 전형적 사례이다.

**풍영루의 전망 경관** | 남계서원 앞에 펼쳐진 경치를 전망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문루 풍영루와 서원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사당 앞이다. 풍영루風詠樓는 19세기 전반에 서원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남계서원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특징은 「풍영루기風詠樓記」에 잘 설명되었다. 정여창의 후손이 쓴



넓은 들판과 시내, 먼 산을 바라보는 남계서원 전망 경관

기문에는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뜬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 유연悠然히 스스로 얻은 뜻이 있다. 두류산頭流山(지리산)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남계의 상류)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정여창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리러 볼 수 있으니, 흡사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증점曾點이 쟁그랑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해서 풍영루라 이름 하였다.”고 밝힌다.

19세기 대표적 유학자의 한 사람인 기정진奇正鎭의 풍영루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증점에 직접 비유하였다. 증점의 기상이란 공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 올라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자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했다는 기상을 말한다.

문루 풍영루에 오르거나 사당 앞에서 남계서원의 전망 경관, 탁 트인 들과 아지랑이 낀 시내 그리고 구름 속에 아득한 산들을 바라보는 감회에서 공자의 탄식을 자아낸 증점의 기상을 상기할 수 있다. 주희는 증점의 기상을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로 평가한다. 이 경지는 마음이 유연한 군자가 남계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느낄 수 있다. 이는 정여창의 기상과 경지이기도 하고, 정여창을 흠모하는 남계서원의 선비들의 기상이기도 할 것이다. 문루 풍영루는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정여창의 기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누각이다.

**남계서원 당호의 상징성** | 남계서원 창설을 주도한 개암介庵 강익姜翼(1523-1567)은 「남계서원기」에서 서원 건물들의 당호가 함축하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강당 이름을 명성明誠이라 함은 『중용中庸』의 ‘명즉성의明則誠矣’란 뜻을 취함이요, 강당 협실夾室을 좌는 거경居敬이라 하고 우는 집의集義라 함은 정자의 말씀 ‘거경궁리居敬窮理’와 『맹자』 ‘집의이생集義以生’이란 뜻을

취함이요. 재실의 동을 양정養正이라 함은 『주역』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서西를 보인輔仁이라 함은 증자의 말씀인 ‘이우보인以友輔仁’에서 취함  
이요. 동쪽 마루를 애련愛蓮이라 하고 서쪽 마루를 영매詠梅라 하고 대문  
을 준도문遵道門이라 하였으니 모든 명칭이 각각 의의가 있다. 임금이 액  
額을 내려주시기를 남계서원南溪書院이라 함은 서원이 남계수南溪水 위에  
있음이로다.

남계서원 강당 이름 명성당明誠堂의 ‘명성明誠’은 『중용』에서 따온 것으로 교  
학 이념이 참된 본성을 밝히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강당의 동쪽 방은 거경  
재居敬齋이다. 거경居敬이란 경敬에 머무른다는 말이고, 경敬이란 삼가고 공경  
하는 자세로 사특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보존하는[閑邪存誠] 방법이다. 강당  
의 서쪽 방은 집의齋集義齋이다. 인격을 수양하는 공부란 그 뜻을 경敬으로 지  
켜야 한다[持志]. 하지만 기를 기르는 것[養氣], 즉 호연지기浩然之氣에 노력  
하지 않을 수 없다. 호연지기란 집의集義, 곧 오랜 기간 동안 의義를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다.

남계서원의 교학이념 ‘참됨을 밝힘[明誠]’은 꾸준히 사특함을 막고 참됨을  
보존하는 거경居敬 공부와 오랫동안의 의義를 축적해서 생겨나는 호연지기  
양성을 통하여 달성된다. 서원의 교학이념과 공부방법은 이처럼 강당과 방의  
당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남계서원 서재의 현판은 보인재輔仁齋이다. 『논어』의 ‘이우보인以友輔仁’, 즉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에서 따온 이름이다. 동  
재의 현판은 양정재養正齋인데 이는 『주역』의 “교육으로 사람을 바르게 기르  
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딴 이름이다. 동·서재  
의 현판 ‘이우보인’과 ‘몽이양정’은 서원 유생들이 사우師友로서 서로를 돕고  
깨우치며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학습정신을 나타낸다. 특히하게 남계서원  
동·서재 앞에는 작은 사각형 연못[方池]이 있어 서원 내부에서 노니며 감상  
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연못을 완상하는 마루 영매현詠梅軒과 애련현愛  
蓮軒은 양정재와 보인재에 딸린 마루이다. 이들 마루는 문루 풍영루와 함께  
남계서원의 천인합일 기상을 함축한다. 연꽃을 사랑[愛蓮]하는 마음은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고고한 품위를 지키듯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선비의 지조이다. 매화를 노래[詠梅]하는 마음은 눈 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선비의 고결한 정신을 상징한다.

서원 문루 풍영루 안쪽에 ‘준도문遵道門’이란 외삼문 현판이 걸려 있다. 공자가 “군자가 도에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군자는 중용에 의탁하여 세상을 숨어 살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뉘 우치지 않으니, 오직 성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중용』 11장 ‘군자준도이행君子遵道而行’에서 따온 것이다. 준도문遵道門은 남계서원이 세상이 알아줄까 근심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중용에 의탁하여 도를 실천궁행하는 군자를 키우는 서원임을 천명한 것이다.

## 4.2 필암서원

**입지와 전망 경관** |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를 제향하는 장성군의 필암서원은 평지에 입지하고 전면 경관도 들판이다. 필암서원은 낮은 산지에 등을 기대고 있으나 평지여서 ‘전저후고’ 지형이 주는 전망을 얻을 수 없다. 높은 이층 문루가 있어야 앞의 너른 들판과 시내 문필천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암서원은 앞으로 평야가 펼쳐지고 멀리 월선봉이 편안하게 보이는 야경野景이다. 문루의 이름 ‘확연廓然’은 이러한 전망 경관에 매우 어울리는 유교적 의미를 담았다. 확연루에서 바라보는 넓게 트인 시야는 “마음을 크게 하면 천지만물을 체득할 수 있다.[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는 대심大心の 의미와 드넓게 트여 만물과 일체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 경지를 실감할 수 있다. 확연하게 개방된 경관은 보는 이의 마음을 크게 함으로써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문루 앞에 키 큰 소나무 식재 등 과다한 조경으로 확연루의 개방적 전망이 많이 막혔다.

필암서원의 주산 연화산蓮花山은 평야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 쪽으로 내려온 산에 붙이는 이름이다. 함양의 남계서원의 주산도 연화산이니 필암서원과 입지 경관이 비슷하다.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을 ‘단봉함서형丹鳳含書形’이라고도



문루 확연루에 오르면, 앞에 펼쳐진 들판에서 넓게 트여서 공평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하는데, 붉은 봉황이 주둥이에 책을 물고 있는 형상으로 책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당이 된다. 이 명당에 필암서원이 입지한다. 봉황형국의 땅은 인재가 배출된다고 하므로 이 서원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큰 학자로 입신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 깃든다고 하여 연화산에 오동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연화산은 해발 144m 정도의 낮은 산이지만 평탄한 서원 자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경사지형을 활용하는 ‘전저후고’ 형으로 서원 건물을 배치할 수 없다. 또 급경사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해서 거목이 된 오동나무까지 베어냈다고 한다. 필암서원의 안대정관은 가까운 들판을 흐르는 문필천과 들판 너머 멀리 아득해 보이는 안산 월선봉이다.

**문루 확연루** | 서원 밖에서 바라보는 필암서원 확연루廓然樓는 당당한 대장부의 기상이다. 평야에 입지한 필암서원 앞에 서면 확연루와 담장만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의 서원 건축에서 문루는 올려다보는 경관이 아니라 직접 위에 올라서서 전망되는 경관을 바라보며 천인합일의 기상을 얻는 유식遊息 경관이다. 필암서원에 확연루가 없었다면, 필암서원의 특징적인 전망 안대 경관을 즐길 수 없었을 것이다. 또 필암서원이 제향하는 하서 김인후의 깨끗한 절개와 공평무사한 기상을 자연 경치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루 확연루는 필암서원에 꼭 필요한 건축물이고, 호남 제일의 서원답게 하는 탁월한 장소이다.

확연루에 올라서면 앞에 펼쳐진 평야의 모습에서 ‘확연루’가 의미하는 ‘확연대공廓然大公’을 느껴볼 수 있다. 사심私心이 없다면, “드넓게 공평할 수 있고, 사물이 이르면 순응할 수 있다.”는 감흥이 확연루에 있다. ‘확연廓然’은 북송 시대 유학자 정호程顥의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공평하여 사물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따를 뿐이다.[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에서 취한 것이다.

**사당과 강당이 마주보는 독특한 예禮 경관** | 한국 서원의 전형적 서원 공간구성은 강당이 앞에 있고 뒤에 사당을 두는 전당후묘前堂後廟이다. ‘전당후묘’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 지형에서 후면의 높은 곳에 사당을 세워, 앞이지만 낮은 위치에 있는 강당에서 사당을 올려 본다는 의미가 있다. 필암서원도 ‘전당후묘’이지만, 평지에 입지한 까닭에 ‘전저후고’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할 수 없다. 사당 우동사祐東祠는 산 아래에 입지하지만 강당과 같은 평지면에 있기 때문에 사당이 존숭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이 요청된다. 다른 한편, 떨어진 곳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은 존엄하지만 뒷방 노인처럼 일상적 중심에서 벗어나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제향 행사가 없을 때 사당은 소외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당 청절사淸節祠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필암서원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사당 우동사는 담장을 두르고 있으나 강당과 같은 마당에 있으면서 청절사보다 규모가 작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당이 서원의 중심이며 존엄한 장소임을 나타내는 경관 구성 방법이 필암서원의 독특한 예경관禮景觀으로 나타났다. 강당 청절당은 다른 서원과 달리 입구 문루를 향하지 않고, 반대편 산 아래의 사당 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동·서재도 강당과 문루 사이에 있지 않고 넓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강당과 사당 사이에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강당과 동·서재가 사당을 일상적으로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사당 우동사는 산을 등지고 남향하여, 좌우로 시립한 동·서재를 사이에 두고, 북향하여 공손하게 예를 표하는 강당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 배치가 사당을 서원의 의례적인 중심일 뿐 아니라, 예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사당 앞에는 인종임금이 하사한 묵죽도墨竹圖를 보관한 장경각도 있어 사당 우동사의 권위를 한층 더한다. 평야라는 입지조건을 극복하여 독특한 예 경관을 창출한 필암서원의 건물 배치 경관은 다시 한번 음미될 가치가 있다.

**출처대절의 당호경관** | 김시찬金時瓘의 「확연루기」에는 김인후의 출처出處와 대절大節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김인후에 대하여,

하서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고매하고 밝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경지[生而知之]에 가까웠고, 보고 조처함이 빼어나서 확충하고 배양함이 완전하고 순수했다. 그래서 사소하고 격리되어 가려진 허물이 없이, 가슴속

이 맑고 깨끗하여 크게 공정하였다. 그러므로 교감을 따라 응대하는 것들이 모두 광명하고 우뚝하여 일반인의 정서로는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라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의 특별한 아낌을 받아 그 국량을 크게 발휘할 것으로 촉망받았지만,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여 시운이 어긋나자 스스로 몸을 감추고 시골에 묻혀 지내면서 청렴과 권도의 중용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확연루기」는 김인후의 출처대절(出處大節)에 대하여 인(仁)이 체(體)가 되어 내면에 확립되고 의(義)가 바깥에서 행해진데 말미암은 것인즉, 김인후의 행동은 애초 하루아침의 강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실로 본원의 경지에서 나온 것으로 확 트인 크게 공정한 데(廓然大公)에서 얻어진 것이다. 만약 산수 속에 은거하여 때 묻지 않고 결백했던 고사(高士)와 유일(遺逸)에 풍도와 절개를 비교한다면, 선생의 경우는 실천을 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인후의 풍도와 절개는 사당·강당·동서재의 당호 현판에 기호경관으로 함축되어 있다. 주희의 글씨를 집자한 사당 우동사(祐東祠)는 신도비문의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서 태어난 이가 해서 김인후 선생이다.”라는 의미이다. 강당 청절당(淸節堂)은 청렴결백한 절개를 지켜 벼슬길을 끊은 선생의 깨끗한 절개를 표상한다. 동재 진덕재(進德齋)는 『주역』에서 탄 것으로 공자께서 건괘(乾卦)의 ‘군자종일건(君子終日乾乾)’을 설명하면서, “군자는 덕을 기르고 업을 닦기 위하여 노력한다. 군자가 충과 신에 노력하는 것은 덕을 닦기 위함이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참되게 세우는 것은 업을 닦기 위함이다.” 하였다. 진덕재가 안으로 마음을 기르는 의미라면, 서재 숭의재(崇義齋)는 밖으로 실천을 의미한다. 공자는 “군자는 시기가 닥쳐왔음을 알면 곧 일어선다. 그러므로 함께 기미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끝마쳐야 할 때가 되었으면 곧 물러설 수 있어야 함께 의(義)를 지켜 갈 수 있다.” 하였다. 김인후의 청절(淸節)은 안으로 덕을 기르는데(進德)에 힘쓰고, 밖으로 의를 높이는데(崇義)서 이루어졌다는 교훈을 청절당·진덕재·숭의재 당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구름에 기대어 넓은 연산평야를 바라보는 돈암서원에서는 멀리 계룡산 연봉이 우러러 보인다.

## 5. 돈암서원과 무성서원

### 5.1 돈암서원

**입지와 전망 경관** |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다. 원래의 서원 입지는 현재의 위치보다 서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하임리 숲말로 연산천에 가까운 저지대였는데 수해를 피하여 1880년(고종 17)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서원이 처음 입지한 숲말 산기슭의 큰 바위를 돈암遯巖이라 불렀는데, 이 바위 이름이 사액서원의 이름이 되었다. ‘돈암’의 돈은 원래 ‘둔遯’자로 세상을 피해 숨어 산다는 은둔隱遁 혹은 둔세遁世를 뜻한다. ‘돈암遯巖’은 사계 김장생이 젊어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국왕의 부름도 사양하고 고향인 이곳에서 은둔하여 학문과 후진 양성에 침잠하면서 산림山林으로 살 고자 한 일생을 상징하는 상징적 기호이다. 김장생은 자신이 은둔한 돈암서원의 입지 경관을 「양성당기養性堂記」에서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뒤쪽에 작은 산이 있고 산 아래에 송죽을 심었다. 앞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숲밖에는 맑은 시내가 흐른다. 흰 모래가 밝고 아름답고 깊어서 배를 띄울만하다. 또 뒤쪽 바위 사이에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끌어와 아래 위에 못을 만들고 붉고 흰 연꽃을 심었다. 또한 복숭아와 버드나무가 심겨진 모래톱이 있고 잔디를 덮은 제방이 수백 보나 되는데 대추, 감, 밤, 뽕나무들이 빙 둘러 서있다.

「양성당기養性堂記」에는 서원에서 멀리 전망되는 경관에 대해서, 대둔산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계룡산이 솟았는데 못 봉우리들이 한자리 사이에 모여 있다고 하였다. 지금의 서원에서도 멀리 계룡산의 이어진 봉우리들이 잘

보인다. 김장생은 양성당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산을 우러르며 즐기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살피며 자연 경물을 접하는 대로 이치를 깨닫는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그 의의를 “그 속에서 함양하며 놀았다면 마음공부에 도움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한다. ‘산을 우러러 바라보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자가 깊이 찬탄하고 인仁에 비유한 바가 있다. 공자는 『시전詩傳』 권14: 소아小雅「거할車輦」의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는 구절을 인용하여, 높은 산을 우러르는 것을 높은 덕행을 본받는 것에 비유하였다. 공자는 또 산을 우러르는 마음을 인仁을 좋아하는 데 비유하면서, “인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도道를 향하여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게 될지라도, 몸이 늙은 것도 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모른 채,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힘쓰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 (『예기禮記』 32편: 「표기表記」)” 하였다.

돈암서원은 연산평야의 낮은 구릉에 기대어 멀리 평야를 내다본다. 넓은 평야에 입지한 덕분에 멀리 있는 계룡산 연봉도 바라보인다. 높은 산을 바라보는 김장생의 즐거움은 곧 인仁을 좋아하고 높은 덕을 따르는 즐거움이다. 김장생은 이곳에 살면서 송시열·송준길·윤선거와 자신의 아들 김집 등 수많은 당대의 거유巨儒를 길러냈다. 김장생의 양산仰山과 호인好仁은 수백 년 동안 호서 제일의 돈암서원의 영광을 지켜온 정신세계이다. 최근에 돈암서원 문루를 크게 세워 ‘산양루山仰樓’ 현판을 달았다.

**예 경관** | 서원 이전으로 조성된 현재의 돈암서원 건물 배치는 옛 돈암서원과는 전혀 다른 서원 경관을 만들어 놓았다. 최근의 서원 정비사업을 통하여 외삼문에서 강당과 사당으로 연결되는 축선을 중심으로 엄격한 좌우 대칭형으로 동·서재 건물을 새로 배치했다. 현재의 돈암서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강당 양성당 정면 가운데에 우뚝한 대리석 몸체의 「연산돈암서원비連山遯巖書院碑」이다.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쓴 비석으로, 김장생 부자의 학문을 칭송하고 서원의 건립과 구조를 적었다. 평지 서원이지만 낮은 구릉에 올라선 사당 유경사惟敬祠는 2층 첨자 공포의 화려한 건물이다. 크지 않지만 화려한 유경사는 문묘에 제향된 김장생·김집·송시열·송준길

네 분 선정先正 신臣을 모신 선정서원의 묘우廟宇다운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고 있다.

**양성과 호인의 돈암서원 현판** | 돈암서원의 강당은 양성당養性堂이다. ‘양성養性’이란 김장생이 마음공부를 위하여 『맹자』 「진심盡心 상上」에 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에서 딴 이름이다. 동재 거경재居敬齋와 서재 정의재精義齋는 양성養性이 추구하는 인仁을 위한 공부의 자세와 방법을 의미한다. 양성당은 김장생이 제시한 본성 함양 공부의 중심이다. 동·서재에서 수업하는 선비들은 마땅히 ‘거경居敬’과 ‘정의精義’로써 본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멀리 보이는 계룡산 줄기를 우러러 보면서[仰山], 중단 없이 김장생 선생의 호인好仁을 배울 것이다. 이것이 유경사-양성당-거경재·정의재-산양루로 이어지는 돈암서원 당호가 상징하는 교학 정신이다.

## 5.2 무성서원

**입지 경관** |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다. 무성서원은 한국서원 가운데 성격이 특별하고, 전망 경관도 매우 특이하다. 전면 경관이 자연경치가 아니고 마을이다. 다른 한국 서원이 도회에서 떨어져 산수경치가 수려한 곳을 입지 특성으로 하는데, 무성서원은 마을 가운데 입지하여 산수경치와는 거리가 멀다. 설립 동기나 제향 인물에서 한국의 다른 서원과 판이하게 다른 무성서원의 특성이 경관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무성서원은 신라 말의 인물인 최치원崔致遠을 제향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건립된 태산사泰山祠에서 기원한다. 태산사는 원래 태인 읍에서 남쪽으로 약 7리 떨어진 계곡의 경치 좋은 반석 위에 있었다. 이곳에서 최치원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놓고 즐기는 유상곡수流觴曲水를 했다고 해서 유상대流觴臺라 불렸다. 유상대에 있던 태산사를 1484년(성종 14) 정극인丁克仁의 향학당



마을 속에 입지하여 민가를 바라보는 무성서원



鄉學堂 자리로 이진한 것이 지금의 무성서원이다. 1696년(숙종 22)에 사액 서원이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대체로 이름난 도학자(성리학자)를 제향하고 마을에서 격리된 산수 경승지에 입지한다. 그러나 무성서원은 도학자가 아닌 선정善政을 베푼 고을 수령을 제향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태인현 그림에도 무성서원은 민가가 가득한 마을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무성서원의 제향 인물과 입지 특성은 서원의 이름, 문루이름과 안대경관, 그리고 주산의 이름에까지 반영되어 있다. 서원이름 무성武城이란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다스렸다는 작은 고을 이름이다. 무성서원이 제향하는 인물이 선정을 베푼 고을 원이므로 중국 산둥성의 작은 읍邑이었던 무성이란 고을 이름도 어울린다. 무성서원의 주산격인 배산 이름은 성황산城隍山이다. 성황산이란 군현에서 제사하는 산으로 읍치의 진산鎭山을 의미한다.

**문루 현가루의 전망 경관** | 무성서원의 경관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문루 현가루絃歌樓이다. ‘현가’란 『논어』에 등장하는 ‘현가지성絃歌之聲’을 의미한다. 서원이름 무성과 문루이름 현가絃歌는 아래 인용문(『논어』「양화陽貨」)처럼 유교 교육의 목적이 좋은 정치를 베푸는 현인을 양성하는 데 있으며, 백성을 다스림에는 읍이 크던 작던 간에 예악禮樂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교화 사상을 상징한다.

공자께서 무성에 가서 음악 소리絃歌之聲를 들으셨다. 선생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답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무성武城의 수령으로 있는) 자유子游가 대답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군자가 예악을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이 예악을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대들이여 자유의 말이 옳다. 앞에서 한 말은 농담이었다.”

현가루에서 바라보는 무성서원의 전망 경관 역시 다른 서원과 다르다. 서원 앞은 산수 경관이 아니라 민가가 가득한 마을이다. 백성을 예악으로 다스린다는 ‘현가지성’을 의미하는 현가루의 전망 경관은 자연적 산수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마을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개방적 서원 내부 경관** | 무성서원은 성황산 아래에 있지만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입지하여 전저후고前底後高 지형을 활용해서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의 위계적 배치로 나타나는 예禮 경관이 뚜렷하지 못하다. 다른 서원에 비하여 건물 규모도 작고 간략하며, 건물의 배치도 전형적이지 못하고 강당의 당호도 없다. 특히 동·서재에 해당하는 강수재講修齋는 사당-강당-문루를 연결하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서원 담장 좌측에 별도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사당 태산사는 강당보다 한길 높은 축대위에 있지만 강당에 너무 가까워 권위적이기보다는 친근하다. 강당의 대청마루 3간의 앞뒤는 모두 개방되어 있다. 강당에서 사당과 문루를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당을 개방적 구조로 만든 것이다. 평지에 입지하고 민가에 둘러싸여 외향적 전망이 제한된 무성서원은 좁은 서원 내부 공간을 중앙 강당의 개방성 확대로 극복하는 특징적 경관을 보여준다. 강수재를 별도 공간에 배치한 것도 좁은 서원 내부 공간을 넓게 느껴지도록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실 참여적 의미의 당호** | 무성서원은 선정을 베푸는 고을 수령을 제향하며 경세적經世的 외왕外王을 추구하는 현실 참여적 서원이다. 산수경치 속에서 인仁의 지각을 추구하며 도학적道學的 내성內聖을 지향하는 은둔적 성격을 가진 다른 많은 서원과 다르다. 1906년 최익현이 영도한 항일의병 ‘병오창의兩午倡義’가 무성서원에서 이뤄진 것 또한 무성서원의 현실 참여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무성서원의 경세적 성격은 서원 입지와 개방적 내부 경관 뿐 아니라, 서원 당호에서도 나타난다. 서원 이름 무성武城과 문루이름 현가絃歌가 무성서원의 경세적 현실 참여를 상징한다.

## 6. 한국 서원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지성사, 정신문화, 그리고 의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서원은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한국에서 더욱 발전하고 현대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서원마다 모시는 선현을 제사하는 오랜 제례 전통이 살아 있다. 도시가 아닌 아름다운 산수를 가려잡은 서원의 입지와 경관은 자연환경과 조화하는 한국 고유의 지리관을 반영하며, 서원 내부에서 산수경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다.

서원은 전통사회에서 교육기관이지만 일종의 종교적 건축이다. 종교적 건축으로서 서원은 유교 특히 성리학의 자연관 지리관 세계관 가치관을 상징하는 독특한 경관을 만들었다. 한국의 서원은 모두 산을 앞뒤에 두고 주변 산수와 조화되는 좌향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서원 별로 독특한 풍수형국을 만들고 전면 안대(案對) 경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와 경관은 유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개별 서원이 제향하는 선현의 지취와 도덕 등 정신세계를 자연경관에 투영한다는 상징성을 부여 받고 있다.

한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이들 9개 서원의 경관은 모두 산을 등 뒤에 두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입지를 하였다. 배산임수는 서원의 외부를 전망하는 경관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통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하는 인(仁)의 지각을 도출 뿐 아니라, 서원 교육이 실천해야 하는 차별적 예(禮)를 서원 내부 건축물의 공간 배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전당후묘(前堂後廟)와 축선을 중심으로 제향-강학-유식공간을 위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예 경관을 실현한 것이다.

서원의 건축공간 배치는 역사성과 지형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형성과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초기 서원인 소수서원은 사당과 강당의 좌향이 일치하지 않고, 서당에서 기원한 도산서원은 서당과 서원이 이원 구조를 보인다. 평지에 입지한 필암서원은 강당과 사당 사이에 마당을 두어 마주보는

방법으로 불리한 평지지형을 극복했다. 서원공간이 좁은 무성서원은 강당 대청을 앞뒤로 완전 개방하여 사당-강당-문루가 트인 내부 경관을 만들었다. 서원 건축공간 배치의 전형성도 서원별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관이 서원 건립을 주도한 옥산서원은 지형경사가 거의 없지만 계산된 건축물 공간배치로 정문-강당-사당이 하나의 시선에 관통되는 예 경관을 이루었다. 병산서원은 거대한 문루를 앞에 세워 전면의 압도적 산수 경치를 차경借景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동서원은 가장 전형적 전저후고와 좌우 대칭 배치를 실현하였는데, 작은 대문 환주문·좁고 긴 돌계단, 그리고 맞배지붕이 엄숙 정제嚴肅整齊한 예禮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예 공간이 주는 부담스러운 긴장을 아기자기한 건축 디테일이 가미된 여유와 해학으로 완화하는 조화를 이루었다. 남계서원은 동·서재 마루를 영매헌 애련헌으로 부르고 그 아래 네모난 연못을 두었다. 진흙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연꽃과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를 보면서 선비의 지조를 함양하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탁월한 한국의 서원 경관은 전면 경관을 통한 천인합일의 인仁에 대한 지각이다. 소수서원 경림정의 경敬자 바위, 도산서원의 천연대天淵臺와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병산서원 만대루의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 옥산서원 무변루의 광풍제월光風霽月, 도동서원의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 남계서원 풍영루의 풍영기상風詠氣像, 필암서원 학연루의 학연이대公廓然而大公, 돈암서원 산양루의 고산앙지高山仰止, 무성서원 현가루의 현가지성絃歌之聲 등이 9개 서원 전망경관에서 느낄 수 있는 인仁의 즐거움이다.

한국서원 경관의 고유성과 탁월성은 유교의 천인합일 사상을 실현한 개방적 전면 경관과 전저후고 지형을 활용한 건축물의 위계적 배치이다. 유교 경관의 다른 특성은 문자 기호 경관에서 찾을 수 있다. 기호 경관으로 서원의 당호 현관은 서원의 정체성을 담고, 교학의 이념과 실천방향을 제시하며, 유교적 세계관을 함축한다. 다양한 서원 당호 현관들이 심오한 교학적 의미를 함축하여 한국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전하고 있다.



전형적 전저후고와 좌우대칭 배치를 실현한 도동서원 전경





돈암서원 양성당의 전망



